

제5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향토인물연구

文靖公 韓繼禧

일시 : 2000년 10월 30일(월)

장소 : 본당구청 1층, 대회의실(석연동)

주최 : 성남문화원

주관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일 정

제 5 회 학술회의 - 향토인문연구

文靖公 韓繼禧

등록 : 13:30 - 14:00

■ 開會式 ----- 사회 : 한 춘 섭 연구위원

개회사 (14:00 - 14:10) ----- 박 은 (성남문화원장 직무대행자)

격려사 (14:10 - 14:20) ----- 김 병 량 (성 남 시 장)

축 사 ----- 박 용 두 (성남시의회장)

축 사 ----- 서 인 수 (경기도 성남교육장)

■ 學術 發表 ----- 좌장 : 조 병 로 향토문화연구소장

▶ 주제발표 1 (14:20 - 15:10) “문정공 한계희의 생애와 사상”

발표 : 문 수 진 (신구대 한국사)

토론 : 백 남 옥 (동서울대 한국사)

한 동 익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 (15:10 - 15:20) 휴 식 =====

▶ 주제발표 2 (15:20 - 16:10) “을동 청주한씨 집성촌의 연원과 애국 독립운동”

발표 : 지 교 현 (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동양철학)

토론 : 박 순 일 (상명대학 국문학)

한 춘 섭 (성남기능대 국문학)

▶ 종합 토론 (16:10 - 17:00)

천 화 숙 (경원대 한국사)

장 철 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속학)

전 보 삼 (신구대 윤리)

김 기 빈 (한국토지공사 학예관)

목 차

개회사 (박 은)

발표논문

文靖公 韓繼禧의 生涯와 思想	5
발표 : 문수진(신구대 한국사)	
토론 : 백남옥(동서울대 한국사)	
한동역(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유동 청주 한씨 김성손의 연원과 예국·독립운동	35
발표 : 지교현(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동양철학)	
토론 : 박순임(상명대학 국문학)	
한춘섭(성남기능대 국문학)	

성남 향토문화연구소 활동 연혁

- 1994 <성남문화연구>제1호 발간
- 1994 <성남문화연구>제2·3호 발간
- 1996 <성남문화연구>제4호 발간/ 제1회 국제학술회의=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
- 1997 제2회 국제학술회의=남한산성과 3학사
- 1998 제3회 학술회의=향토인물 연구(문춘 이길, 여류문사 강정임달)
- 1999 <성남문화연구>제5호 발간/ 제4회 학술회의=향토인물 연구(백현 이경석,
 균물 남공월)
- 2000 <성남문화연구>제6호 발간/ 제5회 학술회의=향토인물 연구(문정공 한계희)

文靖公 韓繼禧의 生涯와 思想

발표 : 문수진(신구대 한국사)

토론 : 백남욱(동서울대 한국사)

한동익(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文靖公 韓繼禧의 生涯와 思想

문 수 진(신구대 한국사)

- I. 머리말
- II. 고려 말기의 청주 한씨
- III. 조선의 건국과 청주 한씨
- IV. 세조의 즉위와 한계희의 생애
- V. 한계희의 사상
- VI. 맺음말

I. 머리말

문정공 한계희(1423~1482)가 살던 시대는 조선초기인 15세기에 해당한다. 15세기의 우리나라 역사는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럽다고 하였다. 민생의 안정과 민족문화의 발달은 한국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다. 바로 이 시대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한계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세종 때부터 집현전에서 근무하고 세종 이후 그의 활동이 뛰어났다고 할 수 있다. 세종이 인문적으로는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민생면에서나 문화적인 발전에는 어느 군왕에 못지 않은 훌륭한 지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한계희는 이 시대 훌륭한 보좌역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한계희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를 놓고 볼적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가 그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문집을 남기지 않았고, 『朝鮮王朝實錄』에 335회라는 적지 않은 기록이 있지만 한계희 개인의 언행이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高麗史』 「韓康列傳」에서 한강과 그 후손들이 고려 후기에 왕권과 어떻게 연결되고,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그 후손들이 조선 왕조 건국에 기여한 점을 찾아 서술해 보고자 한다. 부족한 가운데 실록에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기록과 서거정이 쓴 비명 등을 자료로 엮어보고자 한다.

II. 고려 말기의 청주 한씨

고려말의 원의 간섭과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으로 인한 왕권의 약화가 새로운 사회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이러한 변혁기에 청주 한씨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였다. 청주 한씨는 『世宗實錄地理志』 淸州牧의 土姓 12개 중에 으뜸으로 돼 있다.¹⁾ 청주 한씨로서 초기에 『高麗史』에 나타나는 인물은 없으나 원의 간섭기에 뛰어난 인물이 등장한다. 여말선초에 『高麗史』와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나는 청주 한씨의 인물들에 대하여 열거해 본다.

한계희의 7대조가 되는 한강(韓康)은 고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감찰어사를 지내고 김주수(金州守, 김해)가 되었는데 둔전(屯田)의 폐한 것을 수리하여 곡식 2천 여석을 얻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등 성격이 우수하여 예부랑중에 등용되고 공부시랑·간의대부·국자대사성·한림학사가 되고 충렬왕 때에 지밀직사사가 되고 다시 판삼사사로 올랐다. 이 때 兩府가 국사를 의문하는데 모두 돌아보고 바라만 볼 뿐 주관하는 자가 없으므로 비로소 제추소(宰樞所)에 사촌(司存)을 설치하여 이를 맡았다. 뒤에 관성사로 치사하고 다시 중찬치사를 더하였다.

한강은 불법(佛法)을 심히 좋아하였다고 하였다. 한 때 왕이 강을 불러 말하기를 “과인이 재위한지 이미 오래이고 금년에는 환갑이라 더욱 삼가할 것이니 경은 마땅히 가히 행할 일을 일일이 말해 주도록 하라”하니 강이 청하기를 “중묘를 수리하고 악기를 갖추어서 시사(時祀)를 엄하게 할 것과 제사(諸司)에서 시장의 물품들을 강제로 매상함을 금할 것과 드러난 때의 벼은 삶은 덜어주고 묻어줄 것이며 생물을 놓아주고 도살(屠殺)을 금할 것이며 사냥의 낙을 그치고 비감(肥甘)의 봉양을 절약할 것이며 큰 추위와 심한 더위에는 장죽(漿粥)을 배풀어 기갈을 진흙케 하소서.” 하고 또 “선왕께서 땅을 상보아 견제(鉗制)하여 塔墓를 설치하였는데 후인이 많이 사의(私意)로서 본래 것은 폐하고 새로 창건하여 심지어 불상이 감초 중에 버려져 있으니 마땅히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구찰(舊刹)을 중수케 하소서. 자고로 군왕이 다 불법을 믿음으로써 국조(國祚)를 일으켰으며 천하께서 특히 법화경을 숭상하시니 만약 상시로 수량품(壽量品)을 독송

1) 『世宗實錄地理志』 卷 淸州牧 土姓 12, 韓·李·金·郭·孫·慶·宋·高·俊·楊·東方·鄭

하시면 보산(寶算, 寶齡)이 더욱 연장될 것입니다”고 하였다. 죽은 뒤에 시호는 문혜(文惠)라 하였다.

그의 아들 한사기(韓謝奇)는 간의대부가 되었다. 사기에게는 영(永)과 악(潑) 두 아들이 있다. 한영은 아버지가 불루계(목로화, 禿魯花)리로서 가족을 거느리고 원에 들어갔는데 어려서 원의 서울에서 자라 인종황제(仁宗皇帝)를 섬기고 벼슬이 하남부총관(河南府總管)에 이르렀는데 영이 귀하게 됨으로써 한사기에게는 한림학사 고양현후(高陽縣侯)를 조부인 한강에게는 첨태상예의원사고양현백(僉太常禮儀院事高陽縣伯)을 증하였다.

한악(韓湑)은 충선왕 때에 우대언(右代言)으로 임명되었으며 충숙왕이 즉위하여 선무전서지밀직사사(選部典書知密直司事)에 등용되었다. 원이 왕을 임조케 하여 한악이 시종하였다. 이때 심양왕(瀋陽王) 고(高)가 왕위를 노리어 백단(百端)으로 참소하는 것을 한악이 기모(奇謀)로써 왕을 화에서 벗어나게 하여 공이 일등에 처하므로 철권(鐵券)을 받고 벽상에 도형하였으며 상당부원군을 봉하고 선력파리공신호(宣力佐理功臣號)를 받고 여러번 승진하여 관성사가 되었다. 충혜왕 초에 중한에 나가 죽음에 미쳐 사숙(思肅)이라 시호를 내리고 뒤에 충혜왕 묘정에 배향되었다. 성품이 근신하고 기량이 있어 배사에 세 번 생각하여 행하고 몽고어와 한어(漢語)에 능하였다. 아들은 大淳, 公義, 仲禮, 方信이다.

한 대순은 지도철의사사가 되고 충정왕 때에 기장감무(機張監務)가 되었다. 한공희는 청성군(淸城君)을 봉하고 평간(平簡)이라 시호하였다. 아들이 수(脣)이다. 한중려는 정당문학이 되었고 계성군(繼城君)에 봉하여졌다.

한수(韓脩)의 자는 명운(孟雲)이고 15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초서와 예서를 잘 썼다. 충정왕이 병하여 정방의 필도치(必開赤)를 삼았고 왕이 강화도에 피신할 때 한수가 수종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이름이 높아졌다. 공민왕이 불러 다시 필도치를 삼았고 누친하여 대언이 되어 전선을 맡았다. 신돈이 바야흐로 왕에게 충애를 받으니 그 내력 심히 은밀한고로 수가 이것을 알고 비밀히 계상(啓上)하기를 “신돈은 바른 사람이 아니라 난을 이끌까 두려우니 원컨대 왕께서는 이를 생각하소서. 신이 아니면 누가 감히 말하리까” 라고 하였으나 왕이 신돈에게 미혹되어 수를 의례판서(儀禮判書)에 제배하니 대개 이를 멀리하고자 함이었다. 신돈이 패하매 왕이

2) 고려 후기에 왕족 및 귀족의 자제로서 몽고에 보내져 숙위(宿衛)의 일을 맡았던 질자(質子)

말하기를 “수는 선전의 명이 있었다.” 하고 이부상서 수문전학사(修文殿學士)를 계수하고 이어 다시 우승선지전선(右丞宣知銓選)에 임명하였다. 우왕이 즉위하고 밀직제학이 되고 동지밀직에 승진되었으나 이어 공민왕을 시련한 한안의 일족이므로 외방에 유배되었다가 소환하여 상당군을 봉하고 수충환화공신호(輸忠贊化功臣號)를 사하여 청성군(淸城君)을 봉하였고 판후덕부사(判厚德府事)로서 죽으니 52세였다. 사람들이 다 애석하여졌다. 문정(文敬이)이라 시호를 내리고 관에서 장사를 치렀다. 학식과 행의(行儀)가 세상에서 중히 여긴 바가 되었고 『유항집』(柳巷集)이 있어 세상에 행하였다. 아들은 尙樞·尙質·尙敬·尙德이다.

한방신(韓方信)은 장수의 지략이 있고 과거에 급제하여 공민왕 시에 누천하여 추밀원직학사로 나가 동북면병마사가 되었다. 홍건적의 난에 안우(安祐) 등으로 더불어 경성(京城)을 수복하니 훈을 책하여 1등을 삼고 정당문학에 승진되었다. 원이 덕흥군(德興君) 해(諱)를 세워 왕을 삼고 요양성병(遼陽省兵)을 발하여 들어오니 방신이 첨의평리(僉議評理)로서 동북면도지휘사(東北面都指揮使)가 되어 김귀(金貴)와 더불어 화주(禾州)에 주둔하고 동북을 방어하였다. 이 때에 여진이 역시 변방을 침구하는지라 홀면병마사(忽面兵馬使) 전이도(全以道)·이희(李熙)·이용장(李用藏) 등을 보내어 쳐서 이를 격파하였다. 처음에 복인 김방재(金方叅)가 태조 이성계의 조부 도조(度祖, 李椿)의 딸에 장가들어 삼선(三善)과 삼개(三介)를 낳아서 여진에서 성장하니 체력이 빼어나고 말 타고 활쏘기를 잘 하여 악소배들을 모아 북면에 횡행하였으나 이성계를 두려워하여 감히 함부로 못하였다. 덕흥군의 군사가 서북을 위압함에 미쳐서 왕이 이성계를 보내어 정기(精騎) 1천을 거느리고 가서 이를 도우니 삼선·삼개가 그 번문을 엿보고 여진을 유치하여 홀면(忽面)·삼철(三撤)을 침구하는지라 왕이 교주도병마사 성사달(成士達)에게 명하여 경기 5백을 내어가서 치게 하였으나 삼선·삼개가 함주를 함락하고 전이도와 이희 등으로 군사를 버리고 달려 돌아오게 하였다. 한방신이 김귀와 더불어 화주에 진군하였으나 역시 무너져 물러나 철관(鐵關)을 보전하니 화주 이북은 다 함몰되었다. 이때 국가가 양쪽에서 적의 공격을 받았고 또 방신 등도 패전하니 장사가 기운을 잃고 밤낮으로 이성계 오기만을 바라더니 이성계가 군사를 인솔하고 철관에 이르렀단 말을 듣고 인심이 다 기뻐하며 장사(將士)들의 담기(膽氣)가 저절로 때가되었다. 방신이 휘하의 군사를 나누어 보내어 이를 도벌하니 이성계 역시 군사를 끌고 와서 김귀 등으로 더불어 삼면

으로 진공하여 이를 대과하였다. 화주·함주 등지를 모두 수복하니 살선·삼개는 여진으로 도망하여 끝내 돌아오지 못하였다. 왕이 이성계에게 외척하기를 더욱 중하게 하고 방신에게 채벽(蔡璧)을 내려 그 공을 표하고 개선(凱旋)함에 미처서는 향연을 내전에서 베풀고 이어 서원군을 봉하였다. 元은 홍격을 평정한 공으로 봉훈대부비서감승(奉訓大夫秘書監丞)을 제수하였으며 후에 찬성사로 임명하였다. 아들 안이 자제위에 있으면서 공민왕을 시해한 죄로 변방에 流配하였다가 우왕이 체복(休復) 李英을 보내어 이를 죽였다. 아들은 休·安·寧·烈이다.³⁾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한계희의 7대조가 되는 韓康은 고종때 과거에 급제하여 관계에 나가기 시작하였다. 선대에 뛰어난 인물이 없는 것을 보면 여말의 사대부 출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임금에게 신임을 받고 中贊으로 치사할 만큼 출세하였다. 한강의 손자였던 영은 팔루계로서원에 들어가 황제의 총애를 받았고, 다른 손자인 악은 충숙왕이 원에 갈 때 시종하여 심양왕 고(高)의 간계를 벗어나게 하는 공을 세운다. 악의 아들 한수(韓脩)는 충정왕, 공민왕 때의 총신으로 신돈(辛旽)에게 비호되지 말 것을 예언하고 인사권을 행사하고, 한방선은 과거에 급제하고 홍건적을 물리치고, 동북의 여진을 몰아내는데 태조 이성계와 함께 큰 공헌을 한다. 한강 이후 5대 중에 2대 한사기 만을 제외하고 모두 제상의 자리에 오를 만큼 한씨 일문이 고위 관직 또는 왕의 측근에서 고려말의 왕권 안정에 공헌한다. 그러나 방신의 아들 안이 공민왕을 시해하여 한씨 일문은 일시 권력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III. 조선의 건국과 청주 한씨

조선의 건국은 우리 역사상 근대 이전의 가장 평화로운 정권 교체였다. 중소 지주 출신의 사대부들이 신흥 무신세력과 어울려 새 왕조를 건국한 것으로 본다. 처음에 한씨 일문은 조선왕조 건국에 적극적으로 일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조선의 개국공신에 韓尙敬 한사람 만이 들어 있다. 한상경도 1차공신 책봉 때에는 들어 있지 않다가 태조 원년 9월 27일 任彦忠·黃居正 등과 함께 3등 공신에 추록된다.⁴⁾ 대간은 한상경 등의 공신 추록을 반대하여 “우승지 한상경 등 7인을 공신이라 일컬으니, 신 등은 그속

3) 『高麗史』卷 107, 列傳 20, 韓康

4) 『太祖實錄』元年 9월 27日

이 의혹이 생깁니다. 또 조그마한 공로를 기록하여 공신으로 삼는다면, 여러 해 동안 노고하면서 시위(侍衛)한 인사로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망할 것이오니, 7인의 공신칭호를 없애기를 청합니다.”하였다. 태조는 남은에게 이르기를 “공신은 나와 경 동반이 있는데 대간이 어찌 알겠는가?” 하고 다시는 거론하지 말도록 하였다.⁵⁾ 여기서 조선 초에 한계희 일가가 어떠한 활약을 하는가 알아본다.

韓尙敬은 고려조에서 사선서령(司諫署令)에 임명되었다가 우왕 8년(1382) 문과에 급제하고, 예의좌랑을 거쳐 우정언·전리정랑(田理正郎)·예문응교(藝文應敎)·공부총랑(工部總郎)·종부령(宗簿令)을 지내고, 공양왕 4년(1392) 필직사 우부대언이 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뒤 도승지로서 태조 2년 11월과 3년 8월에 두 번이나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의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朝鮮王實錄』에 나온다. 태조 4년에는 노비변정도감⁶⁾이 설치되어 판사가 되고, 태조 5년 첨서중추원사·도평의사사·충정도관찰사를 역임하고 서원군에 봉해졌다. 그 후 경기좌도 도관찰사가 되고 태종이 즉위한 뒤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에 임명되고 명의 사신 흠차병부주사(欽差兵部主事) 단목지(端木智)가 오니 접반사로서 예를 다하여 대접하였으므로 크게 인정을 받았다. 7년 7월 11일 세자의 혼례를 올릴 때 납정사(納徵使)가 되었다. 태종 7년 8월 21일 명의 사신 한점목아(韓帖木兒)가 관향인 김제에 갈 때 반행(伴行)하였다. 뒤에 풍해(豊海)·강원 두 도의 관찰사가 되고 조정에 들어와서 공조판서·지의정부사·대사헌·호조판서·참찬의정부사·이조판서를 지냈으며, 1415년 서원부원군에 봉해져 우의정이 되고, 1417년 영예문관사, 태종 18년(1418)⁶⁾ 영의정에 임명되고 부원군에 책봉되었다. 세종 5년 3월 7일 죽었다.

韓尙質은 수의 아들로 한상경의 형이다. 우왕 6년(1380) 문과에 급제하고, 정당문학이 되고, 공양왕 때 형조판서·우상시(右常侍)·예문관 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1390년 원추사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서북면 도관찰출척사 겸 병마절도사를 지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예문관 학사로서 주문사가 되어 명나라에 가서 국호를 朝鮮으로 결정 받고 다음해 귀국. 양광도 관찰출척사가 되고, 1397년 경상도관찰사를 거쳐 예문춘추관 대학사에 이르렀다.

5) 『太祖實錄』 元年 10月 3日

6) 한상경의 종기 『世宗實錄』 5年 3月 7日에는 丙申年이라 하였으니 1416년이 된다. 줄기에서 착오한 것 같다.

한안이 공민왕을 시해하여 그 부친 한방신은 유배당하여 죽고, 그 사촌인 한수는 유배되었었지만 풀려났다. 한수의 아들인 한상질·한상경이 조선왕조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상질은 개국 초에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게 하는 중임을 맡고, 한상경은 개국공신으로서 태종 때에 영의정으로서 세종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시기에 정책을 맡으면서 한씨 일문이 조선왕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한혜(韓惠)는 한상경의 아들로 한계희의 아버지이다. 태종 17년 2월 3일 종묘명(宗廟令)으로 있다가 공신도감유사(功臣都監有司)의 판관이 되었다. 태종 17년(1417) 4월 8일 문과 북시에 급제(장원?)하여 전사소윤(典祀小尹)이 되었다. 세종 2년 지사간(知司諫)이 되고, 겸지사간원사(兼知司諫院事)·동부대언(同副代言)·좌대언(左代言)·병조참의·예조참판, 10년 10월 19일 좌군동지총제(左軍同知總制)가 되었다. 10년 11월 8일에는 전헌사 한확(韓確)·조종생(趙從生)과 철일사(節日使)로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11년 4월 9일 북경에서 돌아왔다. 12년 전라감사로 있을 때 옥에 미결로 수십명을 누렸다는 죄로 파면되었다. 12년 12월 3일 함흥 부윤이 되고, 함길도 도관찰사로 있다가 세종 13년 3월 3일 죽었다. 임금이 중관(中官)을 보내어 조문하였다. 세종 13년 1월21일 함길도 기민구제에 대해서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 한혜는 성질이 본래 느려서 아마도 진휼(賑恤)을 제 때에 해낼 것 같지 않다.”하니 황보인이 아뢰기를 “한혜는 조심성 있고 착한 사람입니다.”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조심하는 것은 비록 좋긴 하나, 일을 처리하는데 혹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전심해서 기민을 구제하라는 뜻으로 유시하라”하였다.

한혜의 자녀와 종친 간에 혼인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다음과 같은 일이 있다. 부사직 홍도상의 딸이 나이 어려서 시집가는 일을 허락하지 않고 한혜의 아들로써 사위를 삼기로 약속하고 미리 혼서(婚書)를 주었으나 혼기가 지나도 혼인하지 아니하였다. 여자가 시집간 나이가 되어 근녕군(謹寧君) 이농(李穰, 태종의 信嬪辛氏소생)이 그 아들 달천령(達川令) 이윤(李踰)과 혼인하고자 하여 종부시에 알리니, 종부시에는 이미 한혜의 아들의 혼서를 받았던 일로서 듣지 아니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임금이 이 말을 듣고 홍도상과 종부시 제조 권명손(權孟孫)·소윤 김안생(金安生)·주부 김팽로(金彭老)를 의금부에 내리어 국문하게 하였다. 이때 제조 황보인(皇甫仁)이 평안도에 있었고 판관 박심문(朴審問)도 또한 황보인을 따라가 있었으므로, 의금부에서 명하여 이속을 보내어 박심문을 잡아오게 하

고, 또 황보인에게 글을 내려 그 이유를 물었다. 후에 의금부에서 황보인이 일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올을 기다려 아울러 국문하기를 청하니, 묻지 말라고 명하고 이내 홍도상을 고문하니 자세히 자복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홍도상의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기 전에 법을 어기고 혼인하기를 약속하였으니 이미 올지 못한 일인데, 또 종친을 싫어하여 이를 핑계하고서 혼인을 불응하고 권명손·김안생·박심문·김행로 등도 또 홍도상에게 편들어서 종친을 업신여겼으니, 모두 친왕의 영지(令旨)를 어긴 형틀로서 적용하여 장(杖) 90대를 집행하게 하소서”하니, 명하여 모두 관직만 파면하게 하였다.⁷⁾

한확(韓確)은 여말 한방신의 종손자이며, 군수 한영정의 아들이다. 딸이 세조의 세자빈이었고 성종의 어머니인 민수대비이다. 누이가 명나라 성조의 비로 뽑혀 여비가 되자 태종 17년(1417) 진헌부사로서 명나라에 가서 광록시 소경이 되었다. 다음해에 세종이 즉위하자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오고 세종 20년(1438) 증추원사·경기도 관찰사·병조판서·함길도 도관찰사·판한성부사·지증추원사·이조판서를 역임했다. 문종 1년(1451) 판증추원사로 사온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단종 1년(1453) 좌한성으로 계유정난에 수양대군을 도와 정난공신 1등으로 서성부원군(西城府院君)에 봉해져 우의정에 올랐다. 세조 1년(1455) 좌의정으로 좌익공신 1등이 되고 서원부원군에 개봉된 후 사온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세조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한백관(韓伯儉)은 고려말 한방신의 후손으로 딸이 세자빈(예종비)으로 책봉되었다. 1468년 공조정랑으로 전임, 이 해 예종이 즉위하자 국구로서 청천군에 봉해지고, 남이의 옥사를 다스리는데 가담한 공으로 익대공신 3등에 책록되었다. 1469년 성종 즉위 후 우의정에 올라 성종 2년(1471) 좌리공신 2등으로 청천부원군에 봉해졌다.

한명회(韓明澮)는 한상질의 손자로서 장순왕후(章順王后, 예종비), 공혜왕후(恭惠王后, 성종비)의 아버지이다. 문종 2년(1452) 음보로 경덕궁직이 되고, 단종 1년(1453) 계유정난에 수양대군을 도와 정난공신 1등으로 사복시 소윤에 올랐다. 다음해 동부승지·좌부승지·우승지·좌승지·도승지·이조판서·병조판서가 되었다. 1459년 황해·평안·함경·강원 4도의 채활사를 지낸 후 1461년 상당부원군에 진봉되었고, 다음해 우의정에 이어 1463년 좌의정을 거쳐 1466년 영의정이 되었다. 병으로 한 때 사임했다가

7) 『世宗實錄』 29年1月 24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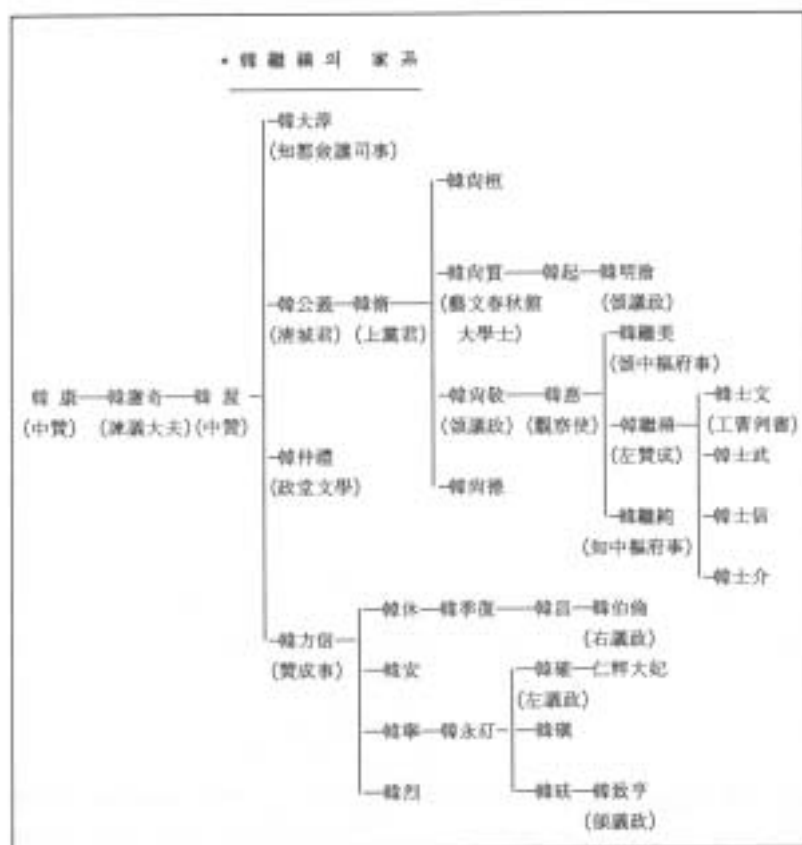
남이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공신 1등에 올랐고, 예종 1년(1469) 영의정에 복직, 이 해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하자 병조판서를 겸했다. 성종 2년(1471) 좌리공신 1등에 책록되고 1484년 70세로 궐장을 하사받았다. 세조의 충신으로 조선초기 문화의 발전에 공이 많았다. 세조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한계미는 자가 공보(公甫)요 한해의 아들로 한계희의 형이다. 정통(正統) 무오년에 문음으로 사용(司勇)에 보직되고, 여러번 나주관관·형조도판좌랑(刑曹都官佐郎)을 역임하였다. 경태(景泰) 임진년(1452)에 세조를 따라 북경에 갔다가 세조가 즉위하자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에 책봉되어, 지사간원사·동부승지·우승지·호조참판·형조참판·이조판서·평안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당시에 이시애가 반란하여 조정에서 도망할 때 한계미에게 명하여 본도의 정병을 거느리고 나아가게 하였으며, 이시애가 주살되자 적개공신(敵愾功臣)의 호를 주고, 승록대부의정부 우한성을 더하였으며, 얼마 있다가 좌한성에 천전되어 겸 이조판서가 되었다. 경인년에 보국승록대부에 가자되어 서원부원군이 되고, 이 해에 순성명랑경제좌리공신(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의 호를 주었다. 얼마 있다가 영중추부에 승직되고, 얼마 아니되어 죽으니 나이가 51세였다. 한계미의 처는 바로 정희왕후(貞熹王后, 세조비)의 언니이다.

韓繼純(-1486)은 한계희의 아우로 처음에 문음으로 세자우세마(世子右洗馬)에 보직되고 누차 전직되어 사헌부감찰·종부시주부·공조정랑·사재감원경(司宰監僉正)·봉정대부 승정원 동부승지·우부승지로 전직되었다. 남이의 역모 사실이 발각되자 예종이 한계순에게 명하여 가서 체포하게 하여, 수충보사병기정난익대공신(輸忠保社炳紀定難翼戴功臣)의 칭호를 내려주고 가정대부에 올랐다. 우승지·좌승지·자헌대부 공조판서로 승직되었고, 또 순성명랑좌리공신(純誠明亮佐理功臣)의 칭호를 주었다. 임진년에 청평군(淸平君) 겸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고 계사년에 재임하여 이조판서가 되었으며 갑오년에 봉군하였다. 병신년에 정헌대부를 더하였고 기해년에 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으며 갑진년에 승정대부를 더하고 다시 봉군하였다. 이 때에 죽으니 56세였다. 한계순은 사람됨이 온량하여 남을 해치는 마음이 없었으며, 평상시 거처할 때에도 올바르게 단정하였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근실하였으며 사람을 대함에 공손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한계순은 비록 재주와 학식은 없었지만, 그 형인 한계미와 한계희가 세조의 충애를 받아, 발탁되어서 승지가 되었으며, 점점 높은 반열에 오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14 제5회 학술회의

한사문(韓士文, 斯文)은 한계희의 아들이자 음보로 여러 벼슬을 거쳐 성종 23년(1492) 좌부승지가 되었다. 연산군 1년(1495) 전라도 관찰사를 지낸 뒤 개성부유수·한성부 좌윤을 지내고, 1498년 동지중추사로 천추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500년 대사헌이 되었다. 다음해 병조·공조의 참판을 거쳐 1504년 공조판서에 올랐으며 연산군 12년(1506) 함경도 관찰사가 되고, 이때 중종반정에 공을 세워 경국공신 4등으로 서천군(西川君)에 봉해졌다.

이상에서 조선 초에 활약한 한계희 일가에 대해 왕조실록에 산전되는 것을 알아보았다.



한상질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국호를 경한 것부터 사신으로 활약한

사람이 많다. 건국 초에 산적한 난제를 해결해준 것이다. 한확의 누이가 명나라의 성조비로 뽑히자 명나라와의 외교는 한씨 일문이 전달하다시피 한 것 같다. 또 왕실과의 증첩된 혼인도 복기할 만하다. 인수대비가 한확의 딸이고 예종비와 성종비가 한명회의 딸이다. 또 다른 예종비는 한백륜의 딸이다. 한계희의 형 한계미의 부인은 세조비 정희왕후의 언니이다. 이렇게 겹겹이 맺어진 왕실과의 인연은 한씨 일문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표>에 나와 있는 世系에서 보듯이 영의정이 셋이오, 우의정이 하나 거의가 고관의 위치에 있었다. 조선왕조의 초기에 왕권의 안정과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헌하였다고 할 수 있다.

IV. 세조의 즉위와 한계희의 활동

한계희는 세종 5년(1423) 9월 4일 출생하였다. 세종 17년 성균관에 입학하였고, 23년(1441)에 진사과에 급제하고, 30년(1448)⁸⁾ 중광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가 되었다고 한다. 바로 집현전 정자가 되어 집현전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 단종 2년(1454) 2월 6일 사헌부지평으로 되기까지 7년 동안을 집현전을 떠난 적이 없다. 조부인 한상경이 개국공신이고 영의정에까지 이른 사람으로 아들인 한해가 그 음덕을 입고, 손자인 한계희도 그 영향을 받았을 것임은 틀림없다. 부조의 음덕으로 벼슬길에 올랐으나 과거에 급제하고 집현전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나 소질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세종 때 학자들이 대거 집현전에 진출하였다. 한계희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세종 2년(1420)부터 세조 2년(1456)에 이르는 37년 동안에 집현전에 재직할 경력을 가진 학자는 90여 명에 달하고 있다.⁹⁾ 한계희가 집현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재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학자로서의 소양과 직무가 맞았다는 것이다. 한계희가 부조의 음덕을 입어 출세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는 그만한 소양이 있었다고 믿을 만하다. 과거에 급제하고, 3형제가 모두 세조 년간에 승정원의 승지가 되었었지만 집현전에 근무한 사람은 오직 한계희 뿐이다.

집현전 학사 중 세종-단종 연간에 많은 사람이 대간으로 진출하여 왕권

8) 서거정이 쓴 비명에는 정묘년이라 하였으니 1447년이 된다.

9) 崔承熙, 「集賢殿 研究」(下) 『歷史學報』 33輯, pp39~81.

『한국사』 9권(국사편찬위원회, 1973) p131

에 제약을 가져오게 되었다. 세조가 등장하면서 이들을 많이 제거하고 드디어 집현전을 혁파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계희는 세조 즉위에 원종공신 1등으로 책봉받게 된다. 세조가 잠저(潛邸) 때에 한계희를 보고 중용하리라 하였다 한다.¹⁰⁾ 세조의 두터운 총애를 받고 사헌부의 요직을 두루 맡으면서 정연과 세자의 교육을 맡게 된다. 세조 6년에는 승경원 우승지·좌승지를 거쳐 공조·이조참판·중추원부사·인순부윤으로서 왕의 측근으로서 총애를 받으면서 왕권확립에 이바지한다. 이시애의 난에 “강효문(康孝文)이 한명희·노사신·김국광·한계희와 더불어 모반을 꾀하고, 그 용병(用兵)하는 절차의 글을 왕래하며 전달하였다.”¹¹⁾ 는 박춘생(朴春生)의 모함을 받고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한계희가 얼마나 임금의 신임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다.

세조 11년(1465) 3월 9일부터 13년 9월 22일 중추부지사로 가기까지 무려 2년 6개월간에 걸쳐 이조판서를 하게 된다. 세조가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6조직제제를 실시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있는 사실이다.¹²⁾ 인사문제를 의정부가 아닌 이조판서와 가장 긴밀하게 상의하였다는 것이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인물이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조판서로 있던 세조 12년 임금이 장녕전에 나아가 한계희 등을 불러 사람이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묻고 친히 주의(注擬)에 임하였다.¹³⁾ 다음해 한계희가 병으로 인하여 집에 있고, 참판 신승선(愼承善)이 전주(銓注)를 담당하였는데, 임금이 주의(注擬)에 마땅함을 잃었다 하여 낙점한 단자(單字)를 회수하고 일부만 제수하였다.¹⁴⁾ 인사문제를 가장 불편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한계희의 최대의 공적이 될 수 있다.

서거정은 『筆苑雜記』에서 한계희가 인사를 처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문정공 한계희는 학문의 조예가 정(精)하고 깊었으며, 식견이 높고 멀어, 크게 세조에게 인재로 대우하는 바 되었었다. 이조판서가 조종히 아뢰기를, ‘신이 전형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문호를 개방하고, 사대부를 맞아 인물의 고하를 평론하며, 그 명목을 세도 오히려 능히 현우(賢愚)를 심찰 구별하여 선발하기가 어려웠는데, 하물며 이제 <제직 연한의 구근

10) 徐居正「韓繼紹碑文『國朝人物考』」“…世祖在龍潛 見公深器重之…”

11) 『世祖實錄』13年 5月 29日

12) 『한국사』 9권(국사편찬위원회, 1973) pp76-82.

13) 『世祖實錄』12年 1月 6日

14) 『世祖實錄』13年 4月 27日

(久近)을 표준하고, 계급을 초월 발탁하지 못하게 하는 격식>을 설치하여, 이복(利祿)을 다투는 폐단을 금지하는 법을 엄중히 하니, 이는 귀머거리와 소경으로 하여금 소리와 빛을 변별하게 함과 같으니 비유컨대, 신의 직을 과하여 주읍소서.' 하니 임금의 이르기, '경의 뒤를 잇는 자가 모두 경과 같다면 가하거니와, 경이 아니면 불가하다.' 하였다. 공은 인물을 구별하여 추천함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지공무사(至公無私)로써 하였고, 사사로운 은혜로써 친구들을 용서하고 칭찬함이 없었다. 그러나 사대부 중에 혹시 아우나 아들을 위하여 벼슬을 구하는 자가 있어도 심히 거절하지 않고 말하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안으로 천거하면 천척을 폐하지 않았다> 하였거니와 자제가 또한 어질다면 말하는 자도 과할 것이 없고, 쓰는 자도 사(私)가 아닐 것이다. 오로지 부귀한 집 자제라야 외용과 행동이 있다고 이끈다면 사람을 쓰는 요령을 모르는 자이다.' 하였다."고¹⁵⁾ 하였다. 한계회가 얼마나 인사에 공정하게 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예이다. 한계회의 선대 중에 고려에서 전주를 달아 이름을 날린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한계회의 업적 중에 편찬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일로 꼽히고 있다. 법전·외서·사서·불서간행 등이 그것이다. 먼저 법전으로서 경국대전(經國대전)의 편찬이다. 조선 초기에 편찬된 법전으로서 조선경국전·경제육전·속육전·육전등록 등이 있었으나 이들은 주로 당대의 교령(敎令)과 조례(條例) 등을 수집한 것이었기 때문에 만세불역(萬世不易)의 법전이 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세조가 즉위하자 그 해 7월 戊寅에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梁誠之)가 제반 법제의 기본적 조사 및 확립의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이어 3년 3월 戊寅에도 續典 이후의 법령을 수집하여 新典을 편찬하고 元典·續典·廢錄·新典 등 四書를 참고하여 六典大成을 만들 것을 건의하였다. 이러한 건의를 배경으로 六典詳定所를 설치하고 六典詳定官을 임명하여 <경국대전>의 편찬에 착수하였다. 자신의 정치이념을 신법전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시종 신법전 편찬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崔恒·金國光·韓繼緒·盧思愼·姜希孟·任元溶·洪應·成任·徐居正 등 중신들로 하여금 그 편찬에 종사케 하였으나 감수와 교열을 세조 자신이 담당하여 일일이 필삭(筆削)을 가하였다. 세조 5년에는 喪中에 있는 前兵曹參議 韓繼緒·前工曹判書 최항을 기복(起復)하여 六典修撰에 참가하게 하는 등 수완사업의 완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한계회가 상중에 있을 때

15) 徐居正 『筆苑雜記』 卷2

최항이 상언하기를 “호전(戶典)은 한계회가 없으면 불가하고, 예전(禮典)은 강희맹이 없어서는 불가한데도 지금 두 사람도 또한 상을 당하였으니, 만약 시기에 맞추어 찬수(纂修)하려고 한다면 저 두 사람도 또한 기복시켜야 할 것이므로 신의 물시 답답한 회포는 곧 두 사람의 회포입니다. 중략 소신은 없어도 가하지만 두 사람(한계회와 강희맹)이 없으면 불가합니다.”¹⁶⁾라고 할 정도로 경국대전의 호전편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드디어 세조 6년(1460) 7월 辛卯에 호전을 완성하여 이를 經國大典 戶典이라고 명명하여 반행하였다.¹⁷⁾ 이듬해인 세조 7년에 형전을 편찬 반포하였으며, 예종 원년(1461)에 육전을 완성하고 성종 때 두 차례의 수정 보완을 하였다. 한계회는 교열작업을 맡아 법전편찬의 중임을 맡았었다.

다음은 불서의 간행이다. 간경도감의 제조를 맡아 불서를 간행하는데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세조가 호불한 임금으로서 왕자 때부터 『석보상절』을 집필했을 만큼 불교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대가 있다. 세조가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유학자로서는 한계회가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던 것 같다. 세조 10년에는 공조판서 김수온(金守溫)·인순부윤 한계회(韓繼禧)·도승지 노사신 등에게 명하여 『金剛經』을 번역하게 하였다.¹⁸⁾ 효령대군이 원각경(圓覺經) 수교(繆校)를 마쳤을 때 임금이 사정전에서 관치를 베풀고 담당자에게 선물을 주고 한계회를 이조판서로 삼고 강희맹에게 인순부윤을 제수한 것은 이들이 『원각경』을 번역한 공으로 승진시켰다고 하였다.¹⁹⁾ 한계회가 간경도감의 제조로 있던 예종 원년 간경도감을 없애려고 하니 “간경도감은 정과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반대하였다.²⁰⁾ 한계회의 선조 중에 7대조인 고려 때의 韓康은 불교를 독실히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대부터 유학자이면서도 불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다.

악방제조를 맡고 <의방유취>를 간행한 것도 정통 유학만을 고집한 후대의 학자와는 다르다.

세조 12년에는 한계회·노사신·강희맹·임원준 등이 대림도(大臨圖) 노

16) 『世祖實錄』 5年 5月 13日

17) 『한국사』 9권, p 251

18) 『世祖實錄』 10年 2月 8日

19) 『世祖實錄』 11年 3月 9日(병진)

20) 『睿宗實錄』 元年 9月 11日.

를을 하는데 이중에 임원준이 의방(醫方)에 가장 정통했으며, 한계희가 그 다음이었다고 한다.²¹⁾ 성종 7년 약방제조로 있을 때 대왕대비가 3합 노구(三合爐口) 1부씩을 내려주고, 승지에게도 녹비(鹿皮) 한 장씩을 내려주었다 한다.²²⁾ 성종 8년(1477) 서평군 한계희·좌참찬 임원준(任元濬)·행호군 권찬(權攢)이 『의서유취』(醫書類聚, 醫方類聚) 30권을 인행하여 올리고 아뢰기를, “이 책을 찍어내는데 3년이 걸려서 공정이 끝났는데, 감인관 유서(柳潸)는 오래 의관으로 체류되었고, 백수희(白受禧)는 전교서 별제로 이미 고만(考滿)이 되었으니, 청컨대 유서는 좋은 벼슬을 제수하고, 백수희는 녹과 관직을 주소서”하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하고 인하여 한계희 등에게 각각 호피 한 장씩을 내려 주게 하였다.²³⁾ 성종 13년(1482) 대사헌 채수(蔡壽)의 상소문 중에 의학의 중요성을 말하기를 “세종시대에 봉역을 잘하는 자로 김하(金何)와 이변(李邊)이 있었고, 오늘날에 의학을 잘하는 자로 한계희와 임원준·권찬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천종의 출신이 아닙니다. 만약에 강의(講肄)와 습득의 법을 밝히시고, 그 중의 총명한 자를 택하여서, 상벌을 분명히 하여 권려(勸勵)하신다면, 김하와 이변, 한계희와 임원준·권찬 만한 자가 어찌 장래에 없겠습니까?” 하는 기록이 있다.²⁴⁾ 한계희는 의학에 관해서도 조예가 깊었음을 알려주는 기사다.

사서의 편찬에 참여한 것이다. 세조 12년 이조판서로 있을 때 최항(崔恒)·김국광(金國光)등과 함께 『東國通鑑』의 편찬에 참여한다. 임금이 화위당(華緯堂)에 나아가 이조판서 한계희·호조판서 노사신과 『東國通鑑』을 수찬하는 당상관과 낭관을 불러서 책 편찬 절차를 묻고는 한두 가지 옳지 못한 곳을 지적하여 고치게 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고 하였다.²⁵⁾ 세조 10년 우의정 具致寬에게 『東國通鑑』의 착오를 살피게 할 때 인순부윤(仁順府尹)으로 있던 한계희 등이 입시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권지(權枝)가 술을 올릴 때에 이르러서는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더욱 지극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권지가 술을 올리는데 한결같이 황송하고 두려워 하니, 군신의 사이에 이와 같을 수가 없다. 하고 한계희를 불러 개유(開諭)하게 하였다. 조금 있다가 병하

21) 『世祖實錄』 12年 10月 6日

22) 『成宗實錄』 7年 11月 14日

23) 『成宗實錄』 8年 5月 20日

24) 『成宗實錄』 13年 4月 15日

25) 『世祖實錄』 12年 3月 29日, 4月 24日

여 좌우의 틀린 것을 찾는 자들을 오게 하였다.²⁶⁾ 국초에 『國朝寶鑑』을 편찬하는데도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⁷⁾

그 외 여러 가지 도서를 편찬하는데 참여한다. 세조 7년에는 “최함과 우승지 한계희 등 문신 30여인에게 명하여 언자(諺字, 한글)를 사용하여 잡서를 번역하게 하였다.”²⁸⁾는 것으로 보아 <초학자회 언주>와 <잡서언해> 등 여러가지 서적 편찬에 공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조 10년에는 임금의 최함·한계희 등에게 명하여 『兵將說』의 주를 산정할 것을 명령하고 강희맹·임원준 등으로 고교(考校)할 것을 명령하였다.²⁹⁾

세조 대에 한계희가 얼마나 왕실과 밀착되었는가는 세조 12년 9월 28일 임금이 병이 났을 때 충궁이 한계희에게 명하여 임금의 병환을 숨기고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니 한계희가 노사신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이 홀로 충궁의 명령을 받고서 수상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혹시 흉서(凶逝)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큰 일에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강희맹의 줄기에 세조가 일찍이 여러 신하들을 품제하여 이르기를 “내게 제일의 신하가 셋이 있는데, 한계희는 미묘함이 제일이고 노사신은 활달함이 제일이고 강희맹은 강명(剛明)함이 제일이다.”라고³⁰⁾하였다.

예종의 즉위와 남이의 옥사, 성종의 즉위에 공신으로 책봉되었다. 한계희는 예종이 세자로 있을 때부터 가까이 있었다. 세조 3년에는 세자우보덕(世子右輔德)으로 있었고, 세조 8년에는 이조참판 겸 세자우빈객으로 있었다.³¹⁾ 예종이 즉위 할 때 대보곤면(大寶袞冕)을 봉위할 정도로 측근에 있었다. 세조의 국장에 중요한 일을 맡기도 하고 예종 재위시에 남이의 옥사를 다스린 것 등으로 공신이 된다. 그러나 예종이 단명으로 끝나고 성종이 즉위하면서 인수대비가 전권을 행사하면서 한계희의 활약이 줄어들 것인 것이 아닌가 본다.

성종 9년(1478)에는 외정부 좌찬성에 오르고 성종 10년 좌의정 의방(擬望)에 올랐으나 상신의 자리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더욱 장수를 하였거나 예종이 오랫동안 재위했다면 세조의 총애나 예종의 세자 때부터의 인연으로 보면 영의정의 자리에도 오를 수 있는 인물이었으리라 본다. 이조판

26) 『世祖實錄』 10年 1月 22日(乙亥)

27) 『正祖實錄』 6年 11月 24日

28) 『世祖實錄』 7年 3月 14日

29) 『世祖實錄』 10年 9月 2日

30) 『成宗實錄』 14年 2月 18日(辛巳)

31) 『世祖實錄』 8年 1月 14日

서로서의 장기간 체임했다던가 왕의 오랜 측근으로 승정원 등 내직에만 있을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원만한 성격 때문이었을 것이다.

성종 13년 윤8월 19일(을유)에 죽었다. 향년 60세이니 당시로서도 장수한 편은 아니다. 병으로 인해 고생을 한 일이 많다.

V. 한계희의 사상

문정공 한계희가 집현전에 그렇게 오래 근무했고 그 많은 편찬사업에 참여하였으면서도 어떻게 문집 하나 남기지 않았는가 이상할 정도이다. 시문이나 문집이 없는 상황에서 그의 학문이나 사상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무리이다. 그와 가까웠던 인물로서 그의 비명을 쓴 서거정과 성종 이후 크게 활약한 최항·노사신·강희맹 등임을 미루어 보아 그가 많은 저술을 하였을 텐데 편찬한 서적에 집필자로서는 이름을 남기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國朝人物考』에 있는 서거정이 쓴 한계희의 비문과 왕조실록에 나타나는 단편적인 기사로서 유추해볼 수밖에 없다.

중소지주층의 발판으로 하여 개창된 조선왕조는 이들의 지식인화의 보편적 확산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적지 않게 가진다. 관학으로서의 지방의 향교와 중앙의 4부 학당, 성균관에 대한 강령정책이 국초 이래 줄기차게 추진된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중앙정부에 대한 이러한 정책적 배려는 적어도 왕조 개창 이후 한 세기 동안은 중소 지주층의 지식인화에 기여하였다. 관리선발을 위한 과거에서도 초기에는 관학 출신의 비중이 우세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 세기 후에 모습을 드러내는 士林은 그렇지 않다.

한계희는 바로 세종 때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초기에 집현전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세조가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축출하고, 집현전 출신이 주로 이를 반대할 때도 세조를 도와 공신이 되고 훈구 세력의 중심에 선다. 세조의 즉위에 공신이 되고 이시애의 난과 남이의 옥사, 성종의 등극에 계속 공신이 되어 왕권의 안정에 공헌한다.

훈구파는 세조의 왕위찬탈을 도와 권신이 되어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자들, 즉 세조의 공신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세조·예종대를 거쳐 성종조에 들어와서도 원로 훈신으로서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은 정치적으로 정치권력에 밀착된 집권세력으로서 고관대작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도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

한 부유층이었다. 이와 같이 이들은 정치·경제적으로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던 노성(老成)한 인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현상 유지에 급급하는 보수적 경향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훈구파의 대표적 인물로 정인지(鄭麟趾)·어효침(魚孝瞻)·신숙주(申叔舟)·최항(崔恒)·이석형(李石亨)·양상지(梁誠之)·권람(權攄)·정창손(鄭昌孫)·서거정(徐居正)·한명회(韓明회)·한계희(韓繼禧)·이극돈(李克墩)·노사신(盧思愼)·강희맹(姜希孟) 등을 꼽는다.³²⁾

이들 훈구파는 대체로 여말선초의 대성리학자이며 신왕조에 적극 협력한 권근의 학통을 이어 받은 자들로서 권근의 문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류였다.³³⁾ 그런데 이들이 절의를 급히 유가에서 중히 여기는 명분에 어긋나는 왕을 섬겼다는 점에서 유학자로서는 입장이 몇몇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세조~성종 년간에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신왕조의 문물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큰 업적을 남겼던 것이다. 또한 이들은 실용적인 학문에 능통하여 관찬의 편찬사업에 종사함으로써 많은 서적을 편찬하는 등의 업적도 남겼다. 그런데 이러한 훈구파는 학문상으로 사장(詞章, 文藝)에 치중하여 성리학 본연의 철학적인 면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³⁴⁾ 세조~성종 초기의 훈구파는 연산군 이후의 훈구파가 사림파에게 약절이나 잡히고 권력에 눈이 어두워 사회를 일으킨 것과는 달리 문화발전에 기여한 바가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 건국과 한세 일문의 관계는 세종 이후에는 중첩된 겹흔으로까지 뻗어질 정도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한계희가 세조의 집권에도 기여하지만 이후 왕권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승정원이나 이조판서로 재임하면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왕권의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다. 세자의 교육이나 남이의 옥사를 다스린 점도 그러한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한계희의 훈구파의 사상과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유교국가인 조선사회에서 훈구파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조선초기의 찬란한 민족문화는 후에 등장하는 사림파의 업적이 아니고 훈구파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명분에 어긋나는 임

32) 『한국사』 12권 p164

33) 洪淳熙, 1973 「士綱과 黨爭과의 關係」 『大邱史學』 7·8 合輯(1973) pp185-186 『한국사』 12권 (국사편찬위원회, 1973) pp163-169

34) 『한국사』 12권 p165

금을 섬겼다는 부정적인 면 하나만 제하면 이들은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자주적인 민족사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한계회의 사상은 가장 친밀했던 서거정, 같은 업무에 가장 많이 참여한 노사신·강희명과 통했다 할 수 있다. 이들이 대학자로서 많은 시문과 문집을 남긴데 비하면 이해가 안될 정도로 저서나 시문이 남아 있지 않다.

한계회의 사상을 굳이 말하자면 충군애국사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계회는 훈구파 중에서 청렴하고 공평무사한 인사를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오로지 왕실을 위하고 안정을 꾀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세조 13년 교태전에서 주연을 베풀고 임금이 종친의 도리를 말할 때 한계회는 “성상의 교지가 이미 이르신 것은 오직 외척의 신하들만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바가 아니라, 조정에 있는 모든 신하들도 마땅히 삼가야 할 것입니다.”하였다. 또 신하들이 종친의 계행을 말할 때에 한계회는 “선원록(璿源錄)을 함부로 더럽히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말하였다.³⁵⁾

남이의 옥사에서도 남이를 병조판서에 제수하려고 할 때 강희명이 한계회에게 “남이의 사납됨이 병사를 맡기기에는 마땅치 못하다.” 하여 한계회가 임금에게 아뢰어 박종선을 다시 병조판서로 삼았다.³⁶⁾ 병약한 임금에게 강한 외척은 위험이 됨을 사전에 제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명문가의 후손으로 왕의 측근에 있으면서도 그가 간교하거나 지나치게 권력을 행사한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성종 때에는 원로대신으로서 일본통신사의 정행(停行) 여부와 대마도주의 힐책(詰責)을 의론할 때 한계회는 “왜인은 요리조리 간사스러움이 무상하며 화환(禍患)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 비록 혹 그 사명을 온전히 한다 하더라도 나라에 무익하며, 만약에 뜻밖의 화가 있게 되면 뉘우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조판을 보내어 도주(島主)를 힐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 한계회는 “비록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묻죄할 만한 일이 없으면 저들을 어찌 정제하겠습니까? 마땅히 속이는 죄가 크게 드러나지 않을 때에, 거짓 모르는 채하고 깊이 험함을 병자하여 정행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옛적에 제왕이 유적(戎狄)을 이겨함에 있어 속박만 하였을 뿐이며 깊이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습시다.” 하니 이극돈이 아뢰기를 “한계회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다. 또 임금이 “그렇다면 조판(朝官)을 보내어 도주의 변사(變詐)를 힐책하는

35) 『世祖實錄』 13年 1月 29日(병신)

36) 『世祖實錄』 14年 9月 7日(癸亥)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 한계회는 아뢰기를 “만약 도주를 책망하여서 도리어 불손한 말이 있게 되면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도주의 간사함을 보니, 어린아이의 놀음과 같으니, 도와시하여 내버려 둬야 옳겠습니다.” 하였다.³⁷⁾ 또 성종 10년 병에서 청병했을 때에 정승들은 따라야 한다고 했으나 한계회는 군사를 보내는 것을 반대하였다.³⁸⁾ 이와같이 한계회는 외교에 대해 합리적이고 신중함을 드러내었다.

억불승유정책을 쓰는 조선왕조에서 세조가 불교를 독실하게 믿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일이다. 한계회는 간경도감의 제조를 달고 불서를 간행하는데 중책을 맡았듯이 불교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다. 간경도감의 혁파를 논의할 때도 그의 불가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억불승유를 하는 조선왕조에서는 크나큰 결단이라 할 수 있다. 세조가 병이 났을 때 한계회가 중국의 명을 받들어 공작기도재(孔荻祈禱齋)를 내불당에서 베푸는데 김수온과 강희명을 행향사로 삼았다.³⁹⁾ 한계회가 불교와 가까웠던 것은 다음의 기사에서 잘 알 수 있다. 예종 원년 세조의 상 중에 있을 때 승려 신미(信眉)·수미(壽眉)·학열(學悅)·학조(學組) 등이 빈전에서 법석을 파하면 광연루(廣延樓)·부용각(芙蓉閣)에 거처하였는데 공급이 넉넉하였고, 무릇 불사가 있으면 승지가 혹시 왕래하여 묻기도 하였다. 중추부지사 한계회가 불일로 갔다가 그들과 담론하였는데, 학조 스님이 말하기를 “강원도에 내가 머무는 절이 있는데 그 사전이 매우 메말라서 쓸 수 없으니, 천라도의 기름진 땅과 바꾸어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상달하겠습니까? 지난번에 학열이 낙산사를 짓는 일로 계목(啓目)을 지어 계달하였더니 그 때 대신이 모두 비웃었습니다. 계목은 의정부와 육조의 일이고 우리가 감히 할 것이 아니므로 나를 위해 인도하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한계회가 말하기를 “문을 타서 단자(單字)를 계달하는 것만 못하다.” 하니 학조가 그 말을 따랐다. 한계회는 문학이 있는 대신으로서 치도(綴徒)에게 물으니, 시론이 비루하게 여겼다고 한다.⁴⁰⁾ 또 며칠 후 혜성이 천시원(天市垣)의 북동원(北東垣) 첫째 별 서남 3척에 들어갔는데, 광망(光芒)이 30척 가량 되었다. 도승지 권감(權監)이 아뢰기를 “이제 혜성이 다니는 도수(度數)가 우리나라 분야에 있으니, 청컨대 지나가

37) 『成宗實錄』 10年 7月 14日

38) 『成宗實錄』 10年 10月 29日(辛亥), 11月 13日(甲午)

39) 『世祖實錄』 12年 9月28日(丙申)

40) 『睿宗實錄』 元年 9月22日(戊寅)

는 길을 상고하여 기양(祈禳)하게 하소서” 하니 천교하기를 “불경에 기양하는 술법이 없는가? 그것을 한계희에게 물어보라”하였다. 권감이 즉시 한계희와 의문하여 아뢰기를, “청컨대 소격전(昭格殿)에서 초제(醺祭)를 행하고 내불당에 도량을 열어 양도(禳禱)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⁴¹⁾

예종이 죽고 별석을 마련할 때에도 대왕대비가 한계희의 말을 들어 행하도록 하였다.⁴²⁾ 평소에 병이 있는 한계희가 상중이라 고기를 안 먹었는지 혹 불교를 믿어 안 먹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계희에게 고기 먹기를 권한 기록도 나온다.⁴³⁾ 한계희는 불교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불교의식에 대해서도 남달리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고려 때 그의 선조 한강이 불교를 독실히 믿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세조 때까지만 해도 사대부들도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다수였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한계희 사상은 크게 보아 민본사상과 연결할 수 있다. 그가 의학서적을 편찬하는데 기여했음을 앞에서 보았다. 유학자이면서 의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세조 12년에는 임금이 한계희 등을 불러 말하기를 “곰속에 나는 생각하기를 현호색(玄胡索)을 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여겨서 이를 먹었더니 과연 가슴과 배의 아픈 증세가 조금 멀어지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약인가?” 하니 한계희가 말하기를 “현호색이란 흉복통(胸腹痛)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이에 현호색을 가미한 칠기탕(七氣湯)을 읊렸더니 과연 병환이 나았다고 한다.”⁴⁴⁾

성종은 한계희 등에게 종기를 보여주고 치료하도록 하였다.⁴⁵⁾

소격서의 제조를 오래 맡은 것도 그가 도교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후기의 성리학자들이 불교나 도교를 심히 배척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그만큼 폭이 넓고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원만하게 배사를 처리하려 노력하였던 것이 한계희의 사상이라 할 수 있겠다. 집현전에 오래 근무하면서 장서각에서 중국 기타 여러서적을 구하여 두었으므로 한계희는 많은 서적을 접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다방면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경국대전의 호전을 편찬하는데 한계희가 아니면 안된다고 했던 것은 그가 경제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고 민생에 깊은 관

41) 『睿宗實錄』 卽位年 9月27日(癸未)

42) 『成宗實錄』 卽位年 11月 28日(戊申)

43) 『成宗實錄』 元年 1月 1日(庚辰)

44) 『世祖實錄』 12年 10月 2日

45) 『成宗實錄』 7年12月 6日(乙亥)

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문정공 한계희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았다. 문집이나 시문으로 널리 전하는 것이 없으니 인물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朝鮮王朝實錄』에 335회나 나오는 기록도 한계희 개인에 대한 학문이나 사상을 찾아보기는 너무도 어려웠다.

『高麗史』 열전에 나오는 그의 선조들이 고려말에 어떻게 활동하였는가를 알 수 있었다. 신진 士大夫로 보이는 그의 7대조 韓康은 임금의 총애를 받고 그의 후손이 현달하게 된다. 공민왕 때 까지 대대로 재상이 배출되어 외교분야에서 또는 인사권을 담당하여 고려말의 명문가로 성장한다. 한안이 자제위에 있을 때 공민왕을 시해하는 일이 생기고 일시 권력에서 배제된다. 조선왕조가 건국되면서 한계희의 조부인 한상경이 개국공신 3등에 책록되고 백부인 한상질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朝鮮》이라는 국호를 받아 오는 등 조선의 건국에 공헌한다. 그러나 한상질이 공신책록에도 처음에는 빠졌다가 나중에 추록된 것을 조선의 건국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건국 후에 명나라와의 외교에 공헌하고 성실성을 인정받고 왕실과의 중첩된 혼인으로 명문가로 등장하게 되는 것 같다.

한계희는 조부인 한상경이 영의정이었으므로 그 음력으로 관제에 나가지만 성균관에 입학하고 과거에 급제하여 집현전에서 오랫동안 집무하게 된다. 여기서 많은 학식과 견문을 넓히게 되고 집현전 학사들을 접하게 된다. 세조가 즉위하면서 집현전을 나오게 되고 왕의 측근으로 외직에는 한번도 나가지 않고 사헌부·승정원·이조·병조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직무에 소홀하거나 위세를 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계희의 두드러진 업적 중에 하나가 편찬사업이었다. 경국대전을 비롯하여 의서·병서·사서·불서 등 모든 편찬관계에는 한계희가 빠지는 법이 없었다.

세조 이후 예종·성종을 섬기면서 왕의 가장 측근에 있으면서 왕권 안정에 기여하였던 것이다. 그의 사상은 훈구파의 사상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첫째가 충군 애국사상이라 하여 큰 잘못이 없을 것 같다. 왕실의 안정과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것이다.

둘째는 성리학은 물론 불교나 도교사상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 간경도감의 제조로 오래 있으며 불서를 간행하고 불교행사에 숭신하였으며, 도교의 소격서 제조로 있으면서 도교행사에도 밝았다.

셋째는 민본사상과도 연결이 가능하다. 법전편찬에 호전을 담당하여 민생문제에 뛰어난 활약을 한다. 의서를 편찬하는데 공헌하고 의술에 있어서도 뛰어났던 것은 당시의 양반 사대부 출신으로서는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계희에 관하여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가장 성실했던 조선시대의 고급관리를 한 사람 보는 것 같다. 아쉽게도 60세에 운명한 것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한 것을 보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의 문집이나 서문을 집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文靖公 韓繼禧의生涯와思想에 대한 토론 요지

백 남 옥(동서울대 한국사)

이 논문은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성종대에 걸쳐 활동했던 인물인 한계희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조망한 것으로 인물사적 연구라 하겠습니다. 먼저 필자가 지적한 고려말 조선 초의 역사 상황 속에서 청주 한씨 가문이 조선과 명나라와의 외교관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여 왕실과 왕권의 안정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기여했다라는 점에 대해 공감합니다. 또한 한계희의 생애나 사상을 다루면서 척족(戚族)으로서의 면보다는 개인적 노력이나 학문적 관심에 초점을 맞춘 것은 올바른 연구시각이라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 한계희가 왕의 측근세력으로서 왕권안정에 기여하였고, 그는 훈구파의 사상 즉, '충군애국사상', '민본사상'과 더불어 '불교나 도교'에 대하여서도 관심을 가지고 폭 넓게 수용하였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교수님의 연구 성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 먼저 제2장 고려말기 청주 한씨 가문의 각 인물의 생애에 대한 서술이 고려사 열전의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령, 한강의 경우 관직을 제수받는 기사가 고려사(세가)권 28~32까지 12차례, 권73(지27~28)에 세 차례나 기술되어 있어 관직의 제수과정에서 그의 정치적인 위상을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이 충렬왕 29년 2월 23일(신사유)에 졸(卒)하였다(고려사(세가) 권32 충렬왕 29년조, 1303년)하여 생몰년대를 미상으로 기재하고 있는 여러 사건류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강을 여말의 사대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대부보다는 고종 때 과거에 급제한 점을 고려할 것 같으면 최씨 집권시 사인(士人, 문학과 행정실무에 조예가 깊은 사람)에 해당되며, 후일 충렬왕 시에 관직이 첨의부 중찬에 이른 점으로 보아 고려후기의 권문세가로 볼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악에 관한 내용 중에 몽고어와 한어에 능하였다고 하였는데 원문을 보면 능한 것이 아니라 '몽고어와 한어를 조금하였다(稍解蒙漢語)'는 의미로 해석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제시된 한계희의 가계도와 더불어 가

문의 존인관계를 첨가하였다면 청주 한씨의 정치적 위상과 사회적 배경을 좀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2. 한계희가 훈구파의 '충군애국사상', '민본사상'적 경향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훈구파뿐만 아니라 일반 유학자들의 충과 민본이라는 보편적인 사고에 대하여 한계희의 사상적 경향이 같다는 의미 부여는 너무나 일반적이고 폭넓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하로서 유학자로서 충과 민본이라는 인식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계희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한계희의 사상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와 더불어 김현전의 성격과 기능, 그리고 김현전 관원들의 정치적인 역할에 대하여 이해함에 따라 한계희의 사상의 특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컨대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권근이나 강희맹, 양성지, 정인지, 신숙주, 최항, 서거정 등 이른바 김현전 유학자들과 한계희의 생애를 관련시켜 그의 사상의 특징이 어떠했는가를 추적할 수도 있는 방편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좀더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한계희가 살았던 시기 김현전 출신의 儒臣들에 대해 훈구파라고 보는데 훈구파라는 개념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훈구파란 "세조의 환위를 도와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귀족적 관료 학자"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이러한 개념으로서는 김현전 출신의 학자들과 기타 여러 유신들을 포함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좀더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官學派가 제시되었습니다. 한계희와 훈구파에 관학파는 첫째, 조선초 중앙에서 권력을 장악하여 현실정치의 장에서 국가경영의 실무를 담당하고, 둘째 주로 기호지방출신이라는 점, 셋째 관학 즉 성균관이나 김현전 등 국가공인의 학문연구기관을 통해 등장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훈구파와 관학파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더불어 한계희가 추충정난익대공신(推忠定難翼戴功臣)과 순성명당경제파리공신(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이란 칭호를 받았다고 하나, 그가 "청렴하고 검소하여 자녀의 혼수를 대지 못하여 세조가 자부의 장구를 갖추어 주었다." 하는 줄기의 내용과 그에 관한 史評 역시 "은 짐안이 초라하여 좌우에 도서뿐이었다."고 할 정도로 빈약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30 제5회 학술회의

다면 대토지 소유로 대변되는 훈구파보다는 관학파라는 입장으로 분류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 한계회 개인과 관련한 자료가 실록 외에는 참고할 것이 없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이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컨대 한계회의 불교적 성향에 대한 분석의 경우 한계회의 줄기 중 불교적 평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한다면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한계회의 생애에 대한 연보작업이나 그가 관여하였던 편관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 표 > 등으로 보완한다면 독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짧은 시간 속에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선행 연구에 토대를 구축하신 필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文靖公 韓繼禧의 生涯와 思想 研究에 대한 토론

한 동 익(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문정공 한계희의 생애와 사상이란 제하의 문수진 교수 논문은 참으로 심오한 통찰력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많은 부문에서 공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계희는 세종께서 장서각을 만드시고 각국의 양서를 구하여 서까래까지 당도록 쌓아놓은 책을 한 권도 빠짐없이 읽고 그 내용을 익혀서 어느 책에 어느 내용 한 가지도 모르는 것이 없었다고 전하며 그로 인하여 당대종의 비서 우세남과 같다하여 “세남비서”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특히 명나라로부터 “해동비서”라고 불리었다.

이것은 학문에 대한 강한 집념이 이루어낸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 하겠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학문에 대한 강한 집념으로 모든 분야에 각종 서책을 탐독하고 통달하였다는 증거이며, 이러한 학문의 통달이야말로 후일 관료에 나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충군(忠君)과 애민(愛民)사상이 결부되어 그 행함에 티가 없고 공평무사하여 모든 부류에 실상과 애환을 원히 꿰뚫어 보는 근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상 대대로 학문에 탁월한 재질을 인정받은 명문가의 전통을 계승한 모범적 관료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아끼지 않는 것도, 뛰어난 처세술과 자신에게는 채찍으로 정면(精練)을 하면서도 타인에게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직무에는 칼날같은 냉철한 사고로 꿈과 사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몇 안되는 정통 관료였다.

세조가 잠저에 있을 때, 문종에게 진언하기를 “한계희를 중히 쓰십시오. 한계희는 경학(經學)에 밝고 행실(行實)이 독실(篤實)하여 당대에 건줄만한 이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을 정도이고, 세조 등극 이후에는 청빈한 선비정신이 더욱 빛을 발하였으니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를 훈구파로 분류한 것은 의의를 달고싶다. 왜냐하면 한계희는 공신이면서도 공신의 지위와 권력을 탐내거나 직책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취하여 본 적이 없는 청렴강직한 정통 관료였기 때문이다. 친형인 “한계미(韓繼美)”가 세조의 처형이었고, 육촌형인

“한명회(韓明會)”가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형제간이라도 그들과 결탁하고 권력을 쉰 일 없이 오직 자기 직분에만 충실하였고, 왕에게는 언제나 직언을 서슴치 않았음은 수많은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신록에서 자신을 빼어 줄 것을 주청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한계회는 집현전에서 갖고 닦은 학문으로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들에게 총애를 받았고 성종조에 좌의정에 외방되었을 때에도 청병(稱病)을 사유로 고사하였다는 기록 등으로 조명하여 보면 한계회가 훈구파로 분류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한계회의 충군(忠君)과 청빈, 애민사상(愛民思想)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조보감이라든가 동국통감 편찬 때에는 정확한 자료 수집활동을 한 것이나, 경국대전 편찬시에 상속부문에 출가한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이 일대일로 상속하고 부모를 모시었던 자녀에게 가일(加一)함으로써 효행의 덕목을 만 백성이 배울 수 있게 하였고, 무식한 백성들에게 쉽게 한글을 배우고 익히 뜻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한글보급에 진력함으로써 간경도감에서 불경의 역경사업 외에도 <의방유취>와, <초학자회 언주>, <잡서언해> 등을 만들어 보급한 것을 보면 백성사랑 정신이 얼마나 지대하였는가를 알 수 있지 않은가?

한계회는 백성들의 애환을 몸소 체험하여 백성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였던 증거 중 하나가 안암동의 유래가 아닌가 한다. 백성들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사는데 임금의 잘못 모신 내가 어찌 세끼를 먹겠는가? 하고 서속으로 조반식즉 판으로 연명하고 남은 국식은 이웃에 나누어 주어 이웃이 굶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한 깨끗한 선비정신으로 가난한 백성들의 생활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고, 백성들의 욕구를 정부에 전달하는 관료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명문사대부가의 일원으로서 경통 학문 한 가지만을 고집하지 않고 모든 학문을 두루 섭렵하여 온갖 국가 간행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온 행적은 오히려 진보적 개화사상(開化思想)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한계회는 충군(忠君) 사상과 애민(愛民) 사상 외에 관리들에게는 청빈(淸貧)사상을 확실히 보여준 영원한 청백리로서 그 위명(偉名)이 청사에 빛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율동 청주 한씨 집성촌의 연원과 애국·독립운동

발표 : 지교현(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동양철학)

토론 : 박순임(상명대학 국문학)

한춘섭(성남기능대 국문학)

율동 청주 한씨 집성촌의 연원과 애국·독립운동

지 교 현(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동양철학)

- I. 머리말
- II. 율동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연원
 - 1. 지리적 환경
 - 2. 역사적 연원
- III. 율동지역의 애국·독립운동
 - 1. 1919년의 3·1운동
 - 2. 1919년의 율동 만세운동
 - 3. 1937년의 율동 애국·독립운동
 - 4. 율동 3·1만세운동기념비 건립 추진
- IV. 맺는 말

I. 머리말

이 연구는 성남문화원(부설)향토문화연구소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향토인물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한계회연구」에 부수되는 하나의 소주제에 속한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율동은 성남시의 분당구에 소속된 하나의 자연부락이며 율동의 지리적 환경이나 역사적 연원도 성남시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본디 성남시는 경기도의 중앙인 동시에 서울특별시의 남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쪽은 광주군(廣州郡)의 중부면·광주읍·오폐면과 인접하고, 서쪽은 과천시·외항시와 인접하고, 남쪽은 용인시의 수지읍과 인접하고, 북쪽은 서울특별시의 서초구·송파구·강남구와 인접하고 있으며, 동경 127도 02분~127도 12분, 북위 37도 20분~37도 28분에 위치하고 면적은 141.79 Km², 인구는 약 93만명에 이르고 있다.

성남시에서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일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하고 있으나 성남시를 북쪽으로 흐르는 탄천(炭川)의 하류에 속하는 서울의 가락동과 역삼동에서 구석기시대의 유적지가 발견된 것은 우연한 일로만

해석되기 어렵다. 신석기시대의 유적으로는 금토동의 민무늬토기, 삼평동의 빗살무늬토기·그물추·민무늬토기, 수전동의 민무늬토기 따위가 발견되어 이 때부터 우리 조상의 문명이 창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하남위례성이 광주군 춘궁리에 있었으므로 백제에 속하였다고 추정되며, 고구려가 한반도의 중앙부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고구려의 한산군(漢山郡)이었다가, 뒤에 신라의 문무왕이 이 곳을 차지한 후로는 한산주(漢山州)로 불렀다가 다시 남한산주(南漢山州)로, 한주(漢州)로 불렀다.

고려시대에는 광주목이 되었고, 조선시대에는 광주목에서 광주부가 되었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1895년에 광주군이 되었다가 광주부가 되고 다시 광주군이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는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가 설치되었다가 1971년에는 경기도 성남출장소가 설치되어 중부면 6개리와 대왕면 낙생면 둘마면을 합하여 128.5Km²를 관할하게 되었고, 1973년에는 독립시로 승격되고 현재는 수정구와 중원구에 이어 분당구가 설치되었다.

율동은 북쪽과 동쪽으로 광주군 광주읍에, 남쪽으로 광주군 오폐면에, 서쪽으로 성남시의 분당동 서현동 야탑동 이매동과 인접한 쾌적하고 수려한 전원도시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율동시민공원은 성남시민의 휴식처를 이루기에 손색이 없다.

II. 율동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연원

1. 지리적 환경

율동지역의 주봉은 해발 413.7m의 영장산(靈長山)이다. 영장산은 일명 땃산(叢山)이라고도 불렀지만 문헌상 근거가 확실치 않은 이름이고 땃산 일가가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영장산¹⁾을 중심으로 동남쪽으로 내려 오면서 장고개 문수산 일곱삼거리 용달편 새마을고개 심곡산 등을 거치면서 광주군의 광주읍과 오폐면과의 경계를 이루고, 서북쪽으로는 솔밭 마귀할멈동뿔간 뚝고개 모란봉 서낭당 돌로깨고개 비득재 등을 거치면서 야탑동, 이매동과 서현동과의 경계를 이룬다.

현재의 율동공원 저수지(분당저수지)에서 영장산쪽을 올려다 보면서 왼쪽을 살펴보면 마의골 보리터 서평농산 태봉 무태관 태봉굴청 서평농안 제실터 목개울 서당터 황새굴 활터거리 고래실 양지탈 산막골 뒤통산 양

1)영장산이라는 이름은 성령장천(聖靈長千)이라는 말에서 연원되어 백제시대부터 호칭되었으나 1914년부터 일제가 구봉(駒峰)으로 표기한 바 있고, 2000년 6월 20일자로 행정자치부 『관보』에 영장산으로 공시되었다.

지탈 갱기 서낭당 주지골 셋골 동막골 사뭇알자리 정골이 보이고, 중간으로 뻗은 길을 따라 살펴보면 솔모령이 셋말 웅달말(건너말) 웃말 안골 거북능안 물방아골 불당골(복당골) 뱃골(배골) 절골 쇠무정굴청이 보이고, 오른 쪽으로 보면 깊은골(한계희와 한사문의 신도비가 있음) 도랫말 너머쪽 아랫장주리 발바위 불탑산 안불대(안복대) 웃장주리 비장나무골 부처중골 겁은바위 쇠머리봉 성교촌(聖敎村) 양지편 큰능안 웅달편 쉬는바위 큰골 큰번대기 천세중골 진신사리골(진산골) 자빠진골과 같은 여러 가지 지명이 보인다.

여기서 서평능산 큰능안 서평능안과 같은 것은 서평군(西平君 韓繼繼 1423~1482)의 묘와 관계되고, 주지골 불탑산 불당골 절골 진신사리골과 같은 것은 불교와 관계되고, 성교촌은 천주교와 관계되고, 서당터는 교육기관과 관계되고, 활터거리는 궁술과 관계되고, 재실터는 조상에 대한 향사와 관계되고, 서낭당은 무속신앙과 관계되고, 물방아골은 물레방아와 관계되고, 쇠무정골은 무쇠솥과 관계되며, 그 밖에 깊은골이니 솔모령이니 쇠머리봉이니 하는 여러 가지 지명은 모두 자연적 지형적 특성에 따라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목개울이라는 곳에는 목욕을 할 수 있는 커다란 석조(石槽)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공원의 저수지 안에 들어 있어서 그 흔적을 찾아 보기 어렵다.

청주한씨는 주로 율동의 양지말(큰말) 셋말 도랫말에 많이 살고 있으며 여타의 성씨는 주로 웅달말과 웃말에 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이전의 신석기 시대부터 성남 땅에 우리 조상이 살았다는 사실과 율동지역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백제와 신라의 통치를 거쳐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적 소산이 존재하였음을 능히 인식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실례로는 우선 서낭터를 들 수 있다. 서낭은 일명 성황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마을의 수호신으로 전한다. 서낭신의 내력은 이미 고려 문종조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하며 조선조에도 이어져 온 것이다. 따라서 마을의 입구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서낭당이 있다는 것은 인근에 취락이 발달하여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자연발생적으로 마을을 수호하는 신을 섬기기 위하여 건물을 짓고 신앙행위를 행한 것을 가리킨다. 다음으로는 절골이나 부처중골이나 안불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불교적 유적을 들 수 있다. 불교도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삼국시대에 들어와 민간신앙으로 널리 행하여졌고 특히 신라에서는 호국불교의 기능을 발휘하기도 한 역사적 사실이 있고, 고려조에서는 국교화 하였다가 조선조에서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쇠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신앙으로

서의 위치는 면면히 유지되어 오늘날에도 그 교세는 놀라우리 만큼 강대한 형편이다. 다음으로는 성교촌과 같은 천주교의 유적이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천주교가 억압을 받던 시대에 천주교도가 들어와 숨어살면서 생명을 부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율동은 무속신앙과 불교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조의 통치철학으로 절대적인 위치에 있던 국교로서의 유교가 지배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교(邪敎)로 인정되어 배척을 받고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는 천주교(기독교)의 신도가 들어 와 은신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만일 천주교인을 은닉해 주는 사람은 그 은닉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순교자도 발생하지 않고 무사하였다고 하니 율동주민의 참된 종교적 인간성을 엿보기에 충분하다. 성숙한 종교적 인격이란 자아를 확대하고, 자기를 객관화하고, 통일적 인생철학을 정립하는 인격이며, 진정한 인류애를 발휘하는 인격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2. 역사적 연원

청주한씨의 연원에 대하여는 '태위공(太尉公) 한란(韓蘭)이 고려 태조를 보필하여 삼한을 통합하고 개국공신의 호를 받은 이래 자손이 번성하여 700여년 동안 공후장상문학무공(公侯將相文學武功)이 배출되기 13대를 면면히 계속하니 명문귀족을 차례로 파져보아도 이보다 앞선 자가 별로 없으리라'고 한 김상헌(金尙憲)의 말과 '한씨는 상당인(上黨人)이니 상당한씨는 기자(箕子)로부터 계출하였다. 기자왕조가 쇠퇴하여 마한(馬韓)이 되었더니 그 자손이 상당에 거주하였으므로 상당한씨라 칭하게 되었다'고 한 허목(許穆)의 말에서 능히 짐작할 수 있다.²⁾

청주한씨의 시조 한란은 지금의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蘭谷里)에서 탄생하여 향학을 일으키고 청주 방정리(力井里)에 무농정(務農亭)을 세우고 농업을 권장하여 마침내 무농을 이루었는데 이 때에 왕건(王建)에게 협조하여 개국공신이 되고 벼슬은 삼중대장태위(三重大臣太尉)이었다.³⁾

성남시 분당구 율동 청주한씨의 파조가 되는 한계희(韓繼禧·文靖公)는 시조 태위공(한란)으로부터 14세가 된다. 그는 조선조 세종 5년(1423)에 출생하여 세종 23(1441)년에 진사가 되고 세종 29년에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 정자(正字)에 보임되었다가 집현전 정자에 뽑혀 경연관을 겸하였다. 세종이 장서각을 세우고 양서를 수집하여 비치하니 한계희가

2) 『청주한씨유사보감』 상권, 청주한씨중앙총친회 1998, pp. 17~18 참조.

3) 『청주한씨유사보감』 상권, 청주한씨중앙총친회 1998, pp. 18~36 참조.

빠짐없이 읽고 기억하였다. 그는 세자(덕종)의 보도교수 겸 우문학을 거쳐 사헌부집의, 예문관직제학 겸 지제교, 세자우보덕 겸 춘추관 기주관, 세자좌보덕, 병조참의, 우승지, 가선대부 공조참판 겸 중추원부사,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세자우빈재, 인순부윤,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세자좌빈재, 경헌대부, 승정대부, 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그는 예종 원년(1469)에 남이(南怡) 등의 정치적 사건을 다스린 공으로 추충정난익대공신에 책록되고 서평군(西平君)에 봉하여졌다. 뒤이어 승록대부로 예종의 상빈(上賓)이 되고 성종이 즉위한 후에는 지경연사를 겸하고 『경국대전』의 찬술과 간행에 제조가 되었다. 성종 21년(1471)에는 순성명랑경제좌리공신에 책록되고 이후 간경사업에 중심이 되어 『능엄경』, 『법화경유조해』, 『금강경삼가해』, 『원각경심경』, 『영가집』 등을 간행하여 학문을 보급하는 데 진력하였다. 특히 『의방유취』는 우리나라 최초의 최고 의서(醫書)로 평가받고 있으며, 『초학자회언주』와 『잠서언해』는 한글보급에 공헌한 저서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공무를 수행할 때 공정무사하고 청백(淸白)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항상 겸양하여 모나고 있는 일이 없었고 일을 처리할 때는 타당하고 정확하여 이의나 시비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세조에게 은총을 극진히 받았으나 마음이 늘 유백하고 지위가 높아도 의지를 더욱 낮추어 집현전의 동료들이 특별히 존경하였다고 한다. 그는 흉년을 당하여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알고 조반과 석죽으로만 연명하였으며, 상당부원군 한명회의 제안으로 전답을 억지로 마련해 주었으나 그 소출을 집으로 가져 오지 못하게 하고 모두 인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그는 성종의 끈질긴 사패지지 하물에 못 이겨 말년에 이르러서야 성종의 태실 옆 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성종은 태실을 광주군 태전리(胎田里)로 옮기고 현재의 성남시 분당구 율동 일대를 사패지지로 내려주게 되었고 사후에는 현재의 묘소에 안장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는 율동 청주한씨집성촌의 파조가 되었고 성종 13년(1482) 이래 '중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시문정공(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謚文靖公)'으로 추앙을 받게 되고 500여년에 이르는 동안 충절 효행 학행 등으로 빛나는 후손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⁴⁾

한계희는 세종 30년(1448)에 문과에 합격하여 승문원 정자가 된 후 대부의 반열에서 성종 13년(1482)에 서거하기까지 34년 동안을 주로 조정에서 청요직에 근무하면서 조정의 대소사에 간여한 일이 수없이 많았다. 그가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에 걸쳐 조정의 대소사에 참여한

4) 『청주한씨유사보감』 상권, 청주한씨중앙총회 1998, pp. 134~137 참조.

것은 그의 영향력이 적지 아니하였음을 뜻한다. 『조선왕조실록』을 통하여 그와 관련되는 국정논의 가운데 주의를 끄는 것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 5년 5월 13일, 최항(崔恒)이 ‘『경국대전』이라는 책은 진실로 만세토록 나라를 다스리는 기구이므로 마땅히 성상의 생각을 정성껏 받들어 완수해야 할 것이다. 호전(戶典)은 한계회가 없어서는 불가하다. 소신(奏進)은 없어도 가하지만 두 사람(한계회와 강희명)이 없으면 불가하다’라고 왕에게 진언한 일이 있다. 『경국대전』은 본디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으로 구성되어 있고 호전은 경비 호적 양전 적전 녹과 제전 전택 급조가지(給造家地) 무농 잡실 군자창 상평창 회계 지공(支供) 해유 병선제량 어업 외관공급 수세 조전(漕轉) 세공 참세 국폐 장권 비탈 때매한 징채 진현 요역 잡령 등으로 구성되어 국가의 살림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분야이므로 그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그는 오늘날의 재정경제에 관련되는 가장 권위있는 전문가로 인정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로 세종 30년 5월 9일, 병축(並畜)의 아내의 상사에 대하여 의논한 일이다. 이 때 종실의 이담(李湛)이 먼저 백씨에게 장가들고 뒤에 이씨에게 장가들었는데, 이씨가 죽으매 백씨의 소생 이효손이 상을 입지않자 이씨의 소생 이성손이 헌부에 고함으로써 의논이 전개 된 것이다. 이 때 승문원 정자로 있던 한계회는 ‘예(禮)에는 정(正)과 변(變)이 있으니 만일 일의 난처한 것을 만나면 예가 때를 따라서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에게 두 적처가 없는 것은 예의 정(正)이요 병축의 두 아내를 아울러 아내라고 통칭하는 것은 예의 변(變)이다. 고려 말년에 사대부가 두 세 아내를 아울러 얻어서 드디어 풍속이 되었는데 국초에는 그대로 인습하여 따지 않다가 태종 13년(영락 11년, 1413년)에 이르러 비로소 법을 세웠다. 본년 이전에 아울러 얻은 자는 전후를 논하지 않고 다만 존비가 상동한 것으로 아내라고 통칭하였다. 그러므로 부득이하여 한 때 권의(權宜)의 변례(變禮)를 세운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계회는 이 논변을 통하여 강상과 권변의 논리를 전개한 것이며 현대윤리학에서 말하는 규범윤리와 상황윤리를 밝힌 것이다.

셋째로 성종 11년 12월 16일, 이심원(李深遠)의 불효불순을 지적한 것이다. 사건은 이심원이 아버지께 불효하기 때문에 왕에게 상언하여 둘째 아들 이혼원(李混源)으로 하여금 봉사하도록 하였는데 심원은 그 죄를 면하고자 처벌 시켜서 상언하게 하여 간사한 것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때 의정부 좌환성 한계회는 ‘심원이 만약 적자로서의 도리를 다 하였다

면 아버지와 조부가 그를 불효불손으로 고하지는 아니 하였을 것이다. 먼 곳에 유배시켜 뒀 사람들을 징계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한계회의 확고한 윤리관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

III. 운동지역의 애국·독립 운동

1. 1919년의 3·1운동

1910년,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강점한 일본은 강력한 무단정치를 감행하여 가혹한 탄압을 자행하는 한편, 민족고유문화의 말살과 경제적 수탈로 우리민족의 민족적 정기와 경제력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혈안이 되었다. 이리하여 독립운동지도자들은 중국 만주 러시아 미국(아메리카주) 등과 같은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 때 마침 1918년 1월에 제기된 미국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는 제1차세계대전의 연합국과 대결하였던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등에 예속하였던 식민지 뿐만 아니라 여타의 모든 피압박민족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게되었고 우리의 재미교포들은 재미한인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그 곳에서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 등을 한인대표로 선출하여 민족자결주의의 본질적 이념에 따라 민족의 자결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으로 망명한 애국지사들은 신한청년단에서 김규식(金奎植)을 한민족대표로 선출하여 파리로 파견하는 한편, 장덕수(張德秀)를 일본으로, 여운형(呂運亨)을 시베리아로, 김철(金澈)과 선우혁(鮮于赫)을 국내로 각각 파견하여 독립운동을 계획하는가 하면 당시 미국대통령의 특사로 상해(上海)에 온 크레인파도 접촉하여 독립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독립운동의 분위기는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에 있는 한인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독립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천명한 독립선언서를 각국의 외교관, 일본의 정부요인과 의회, 조선총독, 신문사, 잡지사 등에 우송하고 「조선청년독립단」의 이름으로 11명의 대표가 서명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 이 때 10명의 대표가 일본경찰에게 체포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권동진(權東鎭) 오세창(吳世昌) 최린(崔麟) 손병희(孫秉熙) 등이 주동이 되어, 독립운동의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화라는 3대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으로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국민여론을 환기하고 일본정부와 의회 및 조선총독에게 국권반환요구서를 보내고 미국대통령과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천도교·기독교·학생층의 개별적인 독립운동추진계획이 통합·단일화하고 불교층이 이에 가담함으로써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민족대표의 인선

이 시작되었다. 이에 천도교측에서 15인, 기독교측에서 16인, 불교측에서 2인이 가담하여 모두 33인이 되었고 「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기초하여 천도교에서 경영하는 보성사(普成社)에서 2월 27일 비밀리에 21,000매를 인쇄하였다. 「독립선언서」는 28일 아침부터 여러 사람에게 배포되어 전국 각지로 전달되었다. 거사일은 3월 1일로 결정되었다. 이리하여 3월 1일 14시 민족대표 33인 중 29인은 서울의 인사동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제창한 뒤 일본경찰에게 연행되었다. 한편 과다공원에서는 14시에 중등학교 이상의 남녀학생 4,000~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독립선언서」의 낭독이 진행되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종로쪽으로 달려나가 시위행진을 벌였다. 삼시간에 수만명의 군중으로 늘어난 시위대열은 대한문(大漢門) 앞에 이르러 고종(高宗)의 빈전을 향하여 삼례(三禮)를 올리고 대열을 나누어 하나는 정동의 미국대사관 쪽으로 향하고 하나는 숭례문을 지나 왜성대(倭城臺)의 총독부로 향하였다.

3월 1일에 독립만세운동을 벌인 곳은 서울뿐만 아니라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등이었고, 이는 날이 갈수록 전국 각지에 파급되어 2일에는 경기도의 개성과 충남의 예산 등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4일에는 전북의 옥구에서, 8일에는 경북의 대구에서, 10일에는 전남의 광주, 강원도의 철원, 함북의 성진 및 임명에서, 11일에는 경남의 부산진에서, 19일에는 충북의 괴산에서, 21일에는 제주와 조천리에서 시위가 일어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만세시위는 한 곳에서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는 13차례가, 해주읍에서는 8차례가 일어나고 3~4차례씩 일어난 곳도 많았다. 시위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노동자 승려 관리 상인 천인 기생 여관이 등 각계각층의 동포가 말라되었고 1,542회 이상의 쫓기에 2,023,098명이 참가하여 7,509명이 사망하고, 15,961명이 부상하고, 46,948명이 검거당하였다. 3·1만세운동에 대한 일제의 대책은 대량학살과 극악한 고문과 방화와 파괴이었다.⁵⁾

2. 1919년의 읍동 만세운동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1919년의 독립만세운동은 일본에 있는 한인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청년독립단」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2월 8일부터 시작하여, 3월 1일 이후로는 한반도 전역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다.

이 무렵, 성남의 읍동에서 15대를 살면서 향도를 가꾸어 온 39세의 한벽

5)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1권 pp. 377~384 참조. 3·1운동 발생 후 10월까지 구속된 사람은 18,000여명이고 기소된 사람은 9,289명에 이르렀다.

봉(韓百鳳 1881~1950, 시조 한란의 29세손)은 고종황제의 인산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가 한용운 손병희 권병덕 오화영 등을 만나게 되고 3월 1일 과고다공원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키로 하였다. 3월 1일 정오로 예정된 과고다공원의 만세운동은 민족대표들의 피체(被逮)로 말미암아 순조로이 진행되지 못하고 민중의 즉흥적인 만세시위운동으로 폭발하였으나 일제의 총칼 앞에 좌절되고 말았다.

을동에서 상경한 한백봉은 광주군에서 상경한 유지들과 따로 모여 고종 황제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3월 26일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의논하였다. 그리하여 고향으로 돌아 온 그는 을동의 문중 어른들과 마을의 원로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을동의 전 주민과 인근주민들에게 만세운동의 정당성을 주지시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유광석 한순희 남찬희 방춘옥 등과 더불어 태극기를 제작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는 제1대 낙생면장을 역임하였던 남태희(南太熙)와 협의하여 돌마면민과 낙생면민이 연합하여 시위하기로 하고 많은 주민이 만세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사일을 분당리의 장날인 27일로 변경하고, 26일에는 돌마면 낙생면 대왕면 일대에서 잘 보이는 모란봉(분당저수지에서 정북으로 보이는 봉우리)에서 봉화를 올리기로 하였다.

이 때 한백봉은 판교(板橋)에 있는 일본 헌병주재소의 마쓰시마 이시치(松島伊七)소장을 만나 만세운동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약속하고나서 26일 밤 20시 경에는 동지들과 더불어 모란봉에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불렀다. 드디어 27일 아침이 오자 분당리 장터에는 무려 1,000여명의 군중이 모여들었고 한백봉의 선창으로 한 '조선독립만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으며, 군중들은 돌마면 내의 각 동리를 순회하면서 시위운동에 돌입하였다. 이 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일본헌병 마쓰시마 이시치(육군 상등병)도 만세를 부르는 군중에 섞여 함께 만세를 불렀다는 것이다.

시위대는 분당리를 출발하여 서현리 이매리 야탑리 여수리 하대원리를 돌아서 다시 분당리 수내리 정자리를 거치는 동안 점점 늘어났으며, 14시 쯤 판교리(너머리)에 도착하였을 때는 남태희가 이끄는 낙생면민과 자진하여 참여한 대왕면민이 합류하여 3,000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시위대는 날이 저물자 횃불을 밝히고 밤늦도록 행진하였고, 3월 28일 아침 분당리와 판교리로 다시 모인 시위대는 전일과 마찬가지로 3,000여명이나 되었고 돌마면 낙생면 대왕면을 오가면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시위대는 남한산성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헌병 1개 소대와 충돌하게

44 제5회 학술회의

되었다. 일본헌병은 공포를 쏘며 해산을 강요하였으나 시위가 계속되자 말을 타고 달리며 채찍과 곤봉으로 군중을 구타하다가 드디어는 총을 쏘고 칼을 휘둘러 시위군중이 피를 흘리게 되었다. 맨 주먹으로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던 시위군중은 드디어 해산하게 되고 한백봉을 비롯한 수 십명의 시위군중이 체포되어 판교주재소와 남한산성헌병대에서 갖은 악형과 고문을 당하게 되었다.

남한산성의 일본헌병대로 체포되어 연행된 한백봉은, 시위의 주동과 선동은 모두 자기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에도 '조선인으로서 조선의 독립을 주장함은 죄가 아니다' 라고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불굴의 애국정신을 드높였다. 한백봉⁶⁾에 관한 당시의 신상기록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본 적 :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 율리 98번지
2. 출생지 : (위와 같음)
3. 주 소 : (위와 같음)
4. 신 분 : 양반
5. 직 업 : 농업
6. 죄 명 : 보안법위반
7. 형 명 : 징역 1년
8. 형 기 : 1년
9. 연도연월일 : 1919년 (대정 8) 7월 9일
10. 형의 개시 : 1919년 (대정 8) 9월 13일
11. 연도재판소 : 경성복심법원
12. 집행감옥 : 서대문감옥
13. 출옥연월일 : 1920년 (대정 9) 4월 28일
14. 출옥사유 : 은면
15. 전 파 : 초범
16. 귀주지 : 본적지의 형, 한백군
17. 신 장 : 5척 4촌 2분
18. 지문번호 : 제45557-24649
19. 출생연월일 : 1881년 (明治 14) 8월 28일⁷⁾

6)한동익, 「윤봉길의 3·1만세운동 경위」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주최, 학술발표회 주제논문, 2000. 8. 15, pp. 9~15 참조.

7)이 신상기록은 한동익의 앞의 주제발표 논문 p. 15에 소개한 일본자료에 따라 작성하였음.

20. 사망연월일 : 1960년 9월 8일

21. 서 훈 : 1990년 8월 15일 건국훈장 애족장 (제 177호) 추서

위 한백봉의 신상기록은 일제가 작성한 것을 그대로 참조한 것이지만 사망 연월일과 서훈은 필자가 추가하였다. 기소 당시의 죄명은 '내란 및 음모'였으며, 9년 8월의 실형이 구형되었으나 죄명이 '보안법위반'이 되고 형기가 '1년'으로 단축된 것은 일제의 간고한 유화책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⁸⁾

귀주지의 형으로 되어 있는 한백균(韓百均 1871~1939)은 한백봉의 중형이다. 한백봉은 백선(百善) 백균 백봉 백현(百賢) 등 4형제이고 시조로부터 29세이다.

3. 1937년의 윤동 애국·독립운동

한순회(韓順會 1885~1961, 시조 한관의 28세손)는 1927년 8월 신간회(新幹會)의 광주지회가 설립 될 때 윤동의 한백봉, 한용희, 한백호 등과 동부면의 이대현, 유인목, 경안면의 박기환 등의 주도로 신간회를 설립하고 초대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활약한 인물이다. 1922년 이후 우리나라에는 사회주의 사조가 침투하여 서울청년회 화요회 북풍회 조선노동총동맹 조선청년총동맹 고려공산청년회 엠엘(ML) 조선공산당 등이 조직되어 민족주의 단체와 대립하게 되었다. 민족주의측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민족단 일전선을 결성하기로 하고 이상재(李商在, 1850~1929)를 추대하여 조직한 것이 신간회였다. 당시의 간부로는 조병옥 안재홍 홍명희 허헌 등이었는데 전국에서 이에 동조하여 가입한 회원이 약 3만명이었으며, 여자들은 별도로 근우회(權友會)를 창설하여 이에 합세하였다. 그러나 일부의 분열로 2년 후에는 와해되고 말았다.

광주군 천도교 교구장이었던 한순회는 신간회가 해체된 후에도 1933년 이래로 김재계(金在桂) 최준모(崔俊模)와 더불어, 일제를 물리치고 조국이 독립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특별기도문을 만들어 신자들로 하여금 매일 암송하게 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그는 중일전쟁이 일어난 직후, 1937년 8월에는 김재계 최준모 홍순의(洪順義)와 더불어 독립운동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회사금모금에 착수하여 독실한 천도교도들로부터 비밀리에 324원을 모금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실이 일본경찰에 노출되어 1938년 3월 4일,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피체되었고 동년 5월 12일

8)한동익의 앞의 논문 p. 12 참조.

석방되기까지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정부에서는 1993년 8월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⁹⁾

4. 율동 3·1만세운동기념비 건립추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19년 3월에는 율동 청주한씨 김성촌의 한백봉·한순희와 낙생면장을 역임한 남태희 등 3인이 주동하여 돌마면 낙생면 대왕면에 거주하는 면민과 오폐면민 일부를 합쳐 무려 3,000여명이나 되는 많은 동포가 일본제국주의의 조국강철에 항의하여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불렀으며, 그 후에도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는 등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일제에 저항하는 역사적 전통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성남 시에는 이러한 위대한 독립운동이 기록으로만 남아 있을 뿐, 기념물로 조성되지는 못한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조성된 「율동시민공원」에 「3·1만세운동기념비」를 건립하여 민족의 선각자들이 후손에게 보여준 독립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여론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율동 3·1만세운동기념사업추진위원회(회장 한동억, 한백봉의 직계 제4손)와, 성남문화원(원장 남선우)은 1999년 6월과 8월에 걸쳐 기념비건립에 대한 청원서와 기념비의 구체적인 건립계획서를 각각 성남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었다.

이 때 기념사업회에서 제출한 청원서에는 취지문과 함께 한백봉선생관결문사본(『한국독립운동사』 게재) 등 5건의 자료를 별첨하였고, 성남문화원장이 제출한 계획서에는 취지문 협찬기관(성남로타리클럽) 기념비모형도 건립예정지 총예산액 행사내용(제막식, 학술회의, 식수사업) 주관기관(성남문화원) 후원기관(성남시,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 후 성남시장은 율동공원 내 3·1운동기념비건립은 공원조성계획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고증될 경우'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방침 아래 기념비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후원하게 되었다.

IV. 맺는 말

지금까지 율동청주한씨김성촌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연원을 비롯하여 율동지역의 애국·독립 운동을 고찰한 셈이 되었다.

9) 『독립유공자 공훈록』(제11차) pp. 310-311 참조. 대정 8년 5월 17일자 광주헌병분견소장이 경성헌병분대장에게 보낸, 광소밀 제918호의 3, 「증인신문조서 송부의 건」 참조.

성남시의 남동부에 위치한 동시에 분당구의 북동부에 위치한 율동은 영장산의 서편 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송림으로 뒤덮인 산 줄기가 북쪽의 주덕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려 지극히 아늑하고 풍경이 수려하며, 교목이 편리하고 인심이 순후한 전원도시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 곳에 청주한씨가 터전을 잡고 김성촌을 이루게 된 것은 15세기 말엽에 해당하는 1482년 문정공 한계희가 사패지에 안장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 후 청주한씨는 500여년이라는 기나 긴 세월을 두고 미증양축을 이룩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인물을 많이 배출하여 왔다.

필자는 비록 짧은 기간에 충분치 못한 자료를 가지고 이 글을 쓰게 되었지만 청주한씨의 가문이 한국의 어느 성씨의 가문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문정공한계희의 후손들은 시대적 사회적 변천에 따라 율동을 멀리 떠나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조상이 끼쳐 준 높은 도덕심을 간직하고 사회의 각계 각층에서 봉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계희의 둘째 아들인 사신(士愼)의 둘째아들 가선대부 석(碩)의 넷째 아들인 자헌대부 지원(智源)의 후손들이 율동을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지원(智源)의 두 아들인 승정대부 술(述)과 문정대부 회(懷)는 임진왜란 때 호성원종공신에 책록 되었으며 특히 지원, 술, 회, 삼부자의 문장(文章)과 시문(詩文)은 당대에 견줄 자가 없었다고 전하여 온다. 후일 술의 아들 정헌대부 명옥(明昱)이 삼부자의 시문을 모아 『삼세집』이란 책을 만들었는데 『삼세집』의 서문은 청음 김상헌과 동주 이만구가 썼으며 당대의 회고의 시문집(詩文集)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삼부자의 시가 각각 한 수씩 밖에 전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회(懷)와 명옥(明昱)은 고향의 수장인 광주목사(회 1599년)와 목사 겸 토포사(명옥 1635년)로 재직하면서 선정 치민하였다고 전한다. 그 뒤 광해군 때 좌의정을 역임한 효순(孝純)은 『신기비결』(神器秘訣), 『당초기』(當初記), 『진설법』(陣設法)등의 저서를 남겨 현재까지 전하여 오고 있으며, 『진설법』은 중요한 전술교재로 평가 받고 있다. 향후 이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율동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연원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율동은 무속신앙과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와 천도교가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무속신앙은 고대로 아시아지방에 널리 행해져 온 신앙이고, 불교는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들어 오고, 유교는 중국에서 들어 오고, 기독교는 서양에서 들어 왔으나 천도교는 서양에서 들어오는 이른바 서학(西學)에 대응하여 창조된 동학(東學)으로서의 민족종교에 속한다. 이

런 시각에서 볼 때 율동의 종교적 특색은, 시간적으로는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고, 공간적으로는 동양과 서양이 공존하는 동시에 주체적으로는 피아(彼我)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현대의 선진문명국가에서 지향하는 이른바 종교적 다원주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고 인류문화의 필연적 발전과정이기도 하다. 한계회가 권좌에 있었던 15세기 중엽부터 15세기 말엽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율동에서 그 후손들이 터전을 잡은 이후에도 조선조의 건국이념과 정책에 따라 무속신앙이나 불교나 기독교나 동학(천도교)은 모두 억압되거나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유교의 입장에서 볼 때 무속신앙은 일종의 미신에 지나지 않고, 불교는 부자형제의 인륜을 저버리고, 기독교는 불교와 유사한 허탄한 종교이고, 동학은 조정에 반기를 들었던 종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가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대면정책을 좌우하던 시절에 율동에서는 모두가 공존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일찍이 최치원(崔致遠)은 진감선사비(眞鑑禪師碑)에서 '도(道)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멀지 않으니 사람에게서는 내 나라 네 나라가 따로 없다. 그러므로 동인(東人, 한국민족)의 자녀는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는 것이 필연이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종교는 일종의 초월자의 가르침이며 초월자의 가르침은 진리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저버리는 종교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진리란 내 나라나 네 나라나, 동양이나 서양이나를 가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곧 종교의 진리성이요 절대성이요 초월성이다. 진리는 신탄나 공구나 예수나 마호메트나 최제우 중에서 그 어떤 한 사람만이 말한 것도 아니요 깨달은 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이 말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진리이고 종교이다. 이런 점에서 율동의 종교적 분위기는 최치원의 종교관과 같고 최치원의 종교관은 오늘날의 종교적 다원주의와 일치한다. 한계회가 조정에서 보여 준 종교적 태도도 또한 같다.

이어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율동의 공동체적 의식이나 형태이다. 일제 강점의 수난과 1950년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민멸되거나 멸실되었을 지도 모르는 향약(鄕約)이 바로 그것이다. 향약은 조선시대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가 있었으며 특히 한중(韓忠)은 전국적인 향약의 실태를 조사하여 조정에 보고한 바 있다. 향약의 기능 가운데는 4대덕목으로 부르는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이 있으나 한 마디로 말하여 화민성속(化民成俗)이라고 한다. 필자는 율동의 한씨집성촌에도 반드시 향약이 실시 되었으리라고 추측하지만 아직 그 자료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동계(洞契)류도 향약의 일종이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율동지역의 애국·독립운동이다. 율동의 주민들에게는 만세를 부르기 전에 애국애족의 정신이 있었다. 고종의 인산에 참여하려는 것이나 만세운동에 참여하려는 것이나 모두 애국애족의 정신이다. 그들은 명성황후의 시해나 을사조약의 체결이나 경술국치에 모두 의분을 견디지 못하였고 그것은 애국애족의 불꽃이 되어 1919년에 불타 올랐던 것이다.

1907에서 1909년까지 활약하였던 남삼목의병장 윤치장의병장 이익삼의병장과, 임경계의병부대 정철하의병부대 임옥여의병부대의 정신이나, 1910년대에 전개한 신익희의 실력양성운동이나,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과 각종 징세에 대한 농민과 상인들의 집단적 저항은 모두 성남(광주)지역 3·1만세운동의 정신이었다.¹⁰⁾

1919년의 3·1만세운동은 89년 전의 일이지 세상은 많이 변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국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도 한다. 민족을 걱정하고 국가를 걱정하면 민족주의요 쇼비니즘이라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달라지지 아니하였는 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강자의 논리와 제국주의자의 논리가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1919년 3월의 합성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율동공원의 3·1만세운동기념비 앞에 서서 그 날의 합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이 글은 2000. 10. 30 학술회의를 거쳐 많이 수정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토론자의 기탄없는 지적을 기대하며, 자료를 제공하고 조언해 준 문정공과 여러분에게 사의를 표한다.)

10) 백남옥 「광주지역 3·1독립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주최 학술발표회 주제논문, 2000. 8. 15, pp.2-4 참조.

“율동 청주 한씨 집성촌의 연원과 애국·독립운동”에 대한 토론

박 순 임(상명대학 국문학)

이 논문은 청주 한씨 집성촌으로서 율동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연원을 밝히고 한씨를 중심으로 한 애국, 독립 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율동의 지리와 유래를 밝힘으로써 지역사회로서 율동을 통시적, 공시적으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며, 현대사에서 율동의 숨은 역할을 드러냄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세인의 관심을 모으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 논문은 집성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아니고 향토 인물로서 한계희 선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 작업이다. 한계희 선생이 성종으로부터 받은 사패지인 율동의 지리적인 환경과 역사적인 연원을 정리해서 넓게는 성남, 좁게는 율동의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였다.

현대에 들어와 개발의 부정적인 부산물로 그 이미지를 뿌리내린 성남이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살아온 유서 깊은 지역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 기자때부터의 성씨인 한씨가 한계희 선생이래로 이 지역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그 후손들이 또한 애국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고 하니 이 지역은 성남사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사의 차원에서 그 역할과 의미를 평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하신 지교수님의 노고는 매우 크다.

논평자는 비판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학습하는 시각에서 율동과 청주 한씨에 대해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여쭙고 후속으로 연구되어야 할 문제점을 정리해 본다.

먼저 율동이 집성촌을 이룬 이후 실질적인 주변 조직 및 교육은 어떤 체제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이들 문중 조직의 정신적인 구심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는지, 다른 집성촌과 달리 이 지역에서 애국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데는 문중 결속력의 영향도 컸으리라 추측된다.

다음, 청주 한씨는 율동의 양지말, 셋말, 도래말에 많이 살고 여타의 성씨는 용달말과 웃말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한씨와 여타 성씨와의 관계는 어떠했으며 근대 이래 신분제 따른 갈등은 없었는지.

한편, 한 집성촌에 여러 종교가 혼재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 사실은 청주 한씨 문중 조직이 여타 보수 유림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이 개화 문명을 더 쉽게 받아들였는지 여

부도 검토해 볼 만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성남의 당면 과제인 신, 구 성남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이 전통적인 촌락 울동이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본다. 이를테면 3.1운동 기념사업 등의 의미를 범 성남 사업으로 전개해서 그 정신을 성남의 구심점으로 삼음으로써 성남 시민의 역사적 아이덴티티를 새로이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유서 깊은 역사의 현장으로서의 성남을 부각한다면 이 지역은 미래의 국가나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울동 청주 한씨 집성촌"에 대한 토론

-한씨 문중의 계보 및 역사적 인물 정리가 과제-

한 춘 심(성남기능대학 국문학)

성남 향토문화연구소의 지금까지 학술회의는 실제 운영상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 고장의 역사적 연원과 상관없이 신 도시형성에 따른 전국권이주민에 의한 도시 개발과 정착으로 인하여 진정한 성남시 이전의 옛 광주문화가 아예 외면 당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그같은 상황하에서 지난 90년대초의 성남문화원 부설기구로 개소식을 가진 '성남 향토문화연구소'는 연구위원 교수님들의 애정이 없었다면 지금껏 이 지역문화 자료 정리와 연구논문 조차 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행히 성남시 당국의 문화연구 지원금에 의해서 <성남문화연구>라는 논문집이 6호까지 발간되기에 이르렀으며, 남한산성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인물 연구를 테마로 한 지금까지의 문촌 이집, 강정일당, 백현 이경석, 금릉 남공철, 송산 조 건에 이어 올해의 문정공 한계희 향토인물 연구 학술회의 개최는 각 성씨 문중의 절대적인 협찬사업으로 근근이 학술연구 발표회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은 연구소 창립 멤버로서 이미 광주군 관할의 4개면 시절인 농경문화권 당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다. 또한 성남시제 이후 한 시민으로서 향토문화의 미개척 분야를 살피며 꾸준히 공부해 온 사람이다. <성남문화연구> 제6호(2000.2월 발행)에 발표시킨 '향토인물의 기초연구' 필자의 글 속에서 밝힌 50여 명의 지역인물 정리를 마친 입장에서 특히, 올해의 발표대상 한계희 문정공 후예되는 처지로서 여러 교수님들과 연구·토론회 일원이 될을 면구스럽게 생각하며, 저교수님의 발표논문 속에서 몇 가지 느낌을 제의코자 한다. 그에 앞서 문정공의 인물됨을 몇 줄 글속에서 찾고자 한다.

(前略)공은 타고난 성품이 간결하고 진중하며 지조와 품행이 단정하고 순수하며 평생의 입지가 의연하며 옛 사람으로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기약하며 학문이 정밀하고 조예가 깊고 식견이 고매하며 말씨에 나타나며 의안으로 말현한 것이 명백하고 공평정대하여 조금도 하자가 없었다. 관청의 일을 처리하는 자리에 나

가서는 공적인 일을 받들고 정도를 지키고 청렴결백으로 스스로를 지행하여 남들과 말할 때는 먼저 스스로 물러나 사양하여 일찌기 모가 나서 남과 물리는 것을 걸음으로 드리내지 아니하며 큰 일을 결정하기에 일해서는 확고부동하며 그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었다. 집에 있을 때는 검소와 절약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보양함이 매우 짝하였다.(中略) 공은 행분과 결의를 닦아서 인생의 처음과 끝을 보전하였으니/<서거경 興錄에서>/

문정공(文靖公)한계희(1423-1482)의 공적 중에 주로 <조선 왕조실록>내용을 중심으로 한 활동 및 <경국대전> 편찬사업의 동참 이야기 그리고, 율동지역 김성촌 상황과 현 율동 마을 주변의 지리적 고유지명 정리, 문정공 후손 가운데 근대사 일제 식민지 시대속의 구국항쟁 민족독립 외침인 '기미년 3.1운동' 정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였지만 심층도 있는 내용이 좀더 체계를 세워 천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함이다. 문정공의 평생동안 저술과 문집이라든가 시 문장이 한편도 없다는 아쉬움도 없지 않지만 그 어른의 일생동안은 세자우문학으로서 경서강독과 법·경전 찬술의 자료수집을 책임진 선비로서도 빈사상태에 빠지는 일이 잦았던 삶을 영위한 이였기에 시문집 몇 권 못지않은 역저술에 관하여 집중연구가 앞으로 있었으면 함이다.

아울러 문정공 묘역이 경기도문화재 제84호로 지정받은 것 외에는 문중에서나 학계에서의 연구성과가 전무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문정공 이후, 그 후손들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김성촌락 종합연구가 체계성있게 진척되었으면 어떨까 함이다. 한편, 문정공 인물소개에 나타나는 <의방유취>라는 의학 사전류 저술 원본이 국내에서 전혀, 찾을 수 없는 실정을 생각한다면 하루속히 <의방유취>가 우리 곁에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이런 엄청난 역적이 숨겨져 있는 어딘가에서 발견되어진다면 대단한 성과가 될 법하다. 이와 더불어 성남시 옛 원주민 가운데 각 고을마다 터 잡고 살아왔던 광주군 관할의 중부면, 낙생면, 대왕면, 들마면 4개 지역내의 20여 김성촌 성씨를 세밀하게 정리해 둘 필요를 느끼며, 그같은 일련의 연구·조사사업 수준에서 해가 다르게 마을 전체가 상업도시화로 변화되는 이 시점에서 율동지역 청주한씨 김성촌락 마을지 발간사업은 향토문화연구의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덧붙여 둘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율동이 경기도 광주군 일원의 조선독립 항쟁사 만세운동 중심지역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발족(2000년 8월 15일)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매년 3월 1일을 기해 성남지역 독립유공자 추모식까지 거행한 율동에서의 이관

54 제5회 학술회의

은 의미있는 행사가 지속되어져 나갈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5회, 성남문화원 (부설)향토문화연구소 학술회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성남시 문화유산 바로 지키기 사업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교헌박사의 '윤동 청주한씨 김성손의 연원과 애국·독립운동' 논제는 숨겨졌던 옛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첫 삽질이 된다. 앞으로 청주한씨 문중에 남겨진 과제가 어떤 일인가 새삼 깨닫게 하는 자리라고 하겠다.

文靖公諱繼禧以下墓山圖

廣州府安海縣東莞



文靖公墓山圖 (卷二 山 2 小圖)

純誠明亮佐理功臣

一等		申升舟	韓明澮	崔恒	洪允成
曹錫英		鄭顯祖	尹子雲	金國光	
權璫					
二等		鄭	琛	鄭麟趾	鄭白
具致宣		沈滄	金碩	韓伯倫	
尹士所		韓繼美	韓繼禧	宋文琳	
三等					

興天寺大鍾銘

洪武丁丑_甲 太祖命葬 神德王后於貞陵_司 在西部望華坊_司 建寺其東

是爲禪宗_司 權近_이 有記_司 後_에 陵移于他寺則仍舊焉_司 世祖七年

鑄大鍾以懸_司 銘曰惟我 聖神_이 夙受佛記_司 手執金輪_司 繼天出治_司

嚴恭寅畏_司 不遑暇寐_司 神人協和_司 靈貺駢至_司 仰惟大覺_司 廣攝緣類_司

設利分身_司 現希有事_司 驚動耳目_司 光耀天地_司 靈瑞震動_司 曠劫罕比_司

天心悅豫_司 弘誓發誠_司 像設眸容_司 演了義經_司 福我 烈祖_司 延及含靈

宗國永固_司 彌億萬齡_司 惟佛道弘_司 普拔幽滯_司 惟 聖體佛_司 大慈

廣濟_司 冶金鑄鍾_司 開覺一世_司 息苦警昏_司 窮未來際_司

進金剛經心經跋

妙義理極其微然後弘宣諸佛祖無上之義
今一切見自佛性焉並離其事而重
先命也方擬措手弓劍遽造嗚呼痛哉
三聖之祖法印理幽

命印三德學祖更校金剛三解譯及續輝南明既元
墨印三德學祖更校金剛三解譯及續輝南明既元
如佛一切含靈見聞受持咸使成就第一希有功德

世弘宗神道設教
世弘宗神道設教

世弘宗神道設教
世弘宗神道設教

世弘宗神道設教
世弘宗神道設教

世弘宗神道設教
世弘宗神道設教

世弘宗神道設教
世弘宗神道設教

世弘宗神道設教
世弘宗神道設教

世弘宗神道設教
世弘宗神道設教

江原襄陽洛山寺記

夫我大士之行化也。或處懸崖萬丈。以絕其蹤。或住海岸千尋。以臨其虛。是蓋圓通無碍之隨處應現。仰普門三昧不可思議者也。襄陽之東。二十餘里。有山。自大嶺東驚而止。磅礴環拱。峰巒聳秀。勢若鳳舞。寺據其中。峰者曰洛山。觀音正趣。二大士像焉。端嚴妙麗。天下無比。其靈跡奇應。現於傳記者。比比而是。我國四衆之遊金剛五臺者。必之洛山而瞻拜焉。我世祖大王之東巡也。與

慈聖大王大妃殿下。率王世子。親禮大士。獻香幣于時。異香

馥郁。聞于數里。舍利分身。於大士。光明燭焔。

世祖盛詣鉢盂。頒示於扈從。臣僚莫不歡喜。頂戴大下濱海。有石掘

州人。相傳。大士湧出之處。

世子躬禮於石堀。又得舍利。世祖益驚喜焉。乃命禪德學悅。重

剏其寺。而且建石塔。以藏如意寶珠相傳。東海龍王。獻于觀音者也。

청주한씨문정공파묘역신도비(淸州韓氏文靖公派墓域神道碑)

종 별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수 량	소유자	소재지	관리자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84호 (1994.4.20)			율동 산 2-1	청주한씨 문정공파 종중

한계희(1423~1482)는 조선초기의 문신으로 시호는 문정이며 우승지, 좌승지, 공조참판, 이조판서·좌참성(종1품)을 역임하였고 특히 세조의 신임을 받았으며 최항 등과 함께 「경국대전」 편찬에 참여했고, 1447년(성종8년) 「의방유취」의 간행을 주관하였다. 신도비는 개석이 조선초기의 정형적인 양식이었던 화관석·비신·기대로 이루어졌고, 화관석과 비신이 하나의 화강편마암으로 화강암인 기대에 꽃아 세우게 되어있다. 규모는 화관석이 폭 72cm, 두께 23cm, 높이 52cm이고, 비신이 61x18x152cm, 기대가 115x59x44cm이며, 총고 248cm이다.

신도비문은 서거정(1420~1488)이 찬하고 안침이 전과 글씨를 썼다. 건립년대는 1483년(성종14)이다.

편집위원

대회장 : 박 은

위원장 : 조병로

위 원 : 한준섭, 문수진, 백남옥
전보삼, 한동억

간 사 : 김선혜

향토인물연구 <문정공 한계희>

인 쇄 : 2000년 10월 28일

발 행 : 2000년 10월 30일

발행인 : 박 은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6-2
(성남농촌지도소 내 2층)

전 화 : 031) 781-1020, 2802

팩 스 : 031) 709-5245
